

열두 살 삼촌

황규섭 (2011년 제7회 5·18문학상 수상작)

사건 노트

문: 짜전거를 잃어버린 시간은?

답: 4월 30일에서 5월 2일 사이입니다.

문: 장소는?

답: 아파트 짜전거보관소에 세워졌는데 없어졌습니다.

문: 당시 현장 상태는 어땠나요?

답: 내 짜전거가 세워져 있던 곳에 다른 짜전거가 세워져 있었고, 몇 개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문: 자물쇠를 채워놓지 않았나요?

답: 아닙니다. 웬만한 절단기로도 끊을 수 없는 케이블자물쇠를 채워놓았습니다.

문: 유력한 용의자나 단서는?

답: 아직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문: 이 사건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답: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벌써 두 번째거든요. 게다가 이번 짜전거는 새로 산 지 열흘도 안 되었어요. 기필코 내 손으로 범인을 잡고야 말겠습니다.

민국은 노트에 깨알처럼 적어 내려갔다. 사건을 풀어 가려면 이런 노트가 필요했다. 강력계 형사인 아버지 덕에 민국은 오래 전부터 이런 식의 기록을 해왔다. 현재 가지고 있는 사건노트만 해도 서너 권이 넘는다. 어머니의 <잃어버린 우산 사건>, 석우의 <실내화 한 짝 사건>, 아버지의 <주머니 속 열쇠 사건>등.

아직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 사건도 몇 건 있긴 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아마추어치고는 꽤 괜찮은 성과였다.

그 중에서 무척 어렵게 해결한 것은 어머니의 <잃어버린 우산> 사건이었다.

“운동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우산이 없잖니.”

어머니가 우산을 잃어버린 곳은 헬스클럽이었다. 헬스클럽은 아파트 앞 4층 건물에 있었고, 어머니의 우산은 무지개처럼 알록달록한 것이었다. 민국은 어머니 몰래 그 건물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살폈다. 특히 어머니와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체크하고 뒤쫓아 가기도 했다. 그러기를 보름. 결국 범인을 찾고야 말았는데……

비가 쏟아지던 날 유력한 용의자의 아파트 앞에서 잠복을 하던 중, 용의자가 무지개 우산을 쓰고 나타난 것이다. 첫눈에도 그것은 어머니의 우산이었다. 물론 똑같은 제품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산 꼭지에 감긴 초록색 테이프까지 같을 수는 없었다. 우산을 잘 잃어버리는 어머니를 위해 민국이 감아놓은 테이프였다. 그것이 꼭지에 그대로 감겨 있었던 것이다.

범인은 어머니와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하는 젊은 여자였다. 아파트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그 사람은 어머니가 우산을 잃어버린 날부터 시간대를 바꾸었다. 그것이 유력한 단서였다.

그러나 민국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애초부터 우산을 찾으려는 목적보다도 용의자를 쫓는 과정과, 자신의 추리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 시작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끝까지 자신의 우산이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었다. 똑같은 우산이야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런 자질구레한 일을 나서서 해결해 줄 경찰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우산과 자전거는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은가. 이번엔 기필코 범인을 잡아 어떻게든 죄 값을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아버지가 보는 책을 들춰보면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다. 꼭 그런 벌을 받게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전거에 대한 보상과 사과를 받을 생각이었다.

이번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다.

맨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탄 시각은 4월 30일 오후 5시 경.

그날은 아파트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따라 달렸다. 오르막길에서 땀을 뻘뻘 흘리다가, 내리막길에선 몸으로 중심을 잡으며 핸들에서 손을 놓았다. 자전거는 제 스스로 달렸다. 야호!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그러나 그 소리는 얼마 못 가 비명으로 변하고 말았다. 누군가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불쑥 나타나는 바람에 그만 중심을 잃은 것이다. 민국은 자전거와 함께 데굴데굴 굴렀다. 자전거는 멀쩡했지만 무릎을 다치고 말았다. 살갓이 벗겨져 핏물과 진물이 배어나왔다.

그날 이후로 자전거를 타지 않았고 자전거보관소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무릎이 아파서 탈 수 없었다. 그러다 오늘 오후 4시 경에 자전거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

암담했다. 그리고 화가 났다. 도대체 누구 짓일까? 아이들 짓일까? 아니면 어른? 어른일 수도 있었다. 이번에 샀던 자전거는 어른도 탈 수 있는 거였다. 올 해 들어서 민국은 키가 부쩍 컸다. 어머니 키와 비슷할 정도였다. 자전거를 사 주실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자전거는 앞으로 너 장가 갈 때까지 타는 거야. 알았지?”

어머니겐 비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뿐 아니라 당분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범인의 귀에까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영영 자전거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민국은 노트를 다시 꼼꼼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잃어버린 자전거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는 어떤 표시라도 있는가?

있다. 민국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 안장 밑에 감아 놓은 초록색 테이프.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안장을 뜯어내지 않는 한 범인은 그 테이프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민국의 자전거임을 증명해 줄 것이다.

이다음에 설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되자고 결심한 후로 민국은 자신의 물건엔 자신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해 두었다. 특히 밖에서 사용하는 것들, 우산이라든가 신발,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에 초록색 테이프를 붙여 놓은 것이다. 탐정이 되려면 적어도 탐정인 자신이 허점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손깍지 위에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던 민국은 고개를 가웃했다.

내가 자전거를 새로 샀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

그것도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민국은 노트에 최경식, 이석우, 장근희라고 썼다.

4월 30일에 그 아이들과 공원에서 함께 놀았다. 근희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탔고, 농구공을 가지고 왔던 경식은 민국의 자전거를 빌려 타며 놀았다. 근희는 얼마 전에 자전거를 잃어버려 인라인스케이트를 탄다고 했다.

그날 민국의 새 자전거에 유독 관심을 보였던 것은 석우였다. 석우는 자기 자전거는 너무 낡아서 끌고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는 민국의 자전거를 여기저기 만지며 부러워했다. 이거 얼마야? 어디서 샀어? 물어보기도 했었다.

그런 내용도 노트에 썼다. 그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애들은 짓궂기는 해도 친구 물건을 훔칠 애들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노트에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건 단지 사건을 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이런저런 공식을 대입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 범인을 잡기 위해선 사건과 조금이라도 관계된 인물들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 좋다. 친구나 가족은 물론 탐정 스스로의 행동 역시.

*

그 날 민국과 친구들은 셔츠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공원 옆 구멍가게에서 음료수를 사 마셨다. 그때 구멍가게 근처에 있던 아이들 몇 명이

“와! 새 자전거다!”

하고 달려왔다.

‘그 애들이 누구더라?’

두 명은 아파트 단지 애들 같았고, 또 몇 명은 못 보던 아이들 같았다. 민국은 기억나는 아이의 인상착의를 적었다.

<4학년 째 보이는 남자 아이- 앞머리가 길고 노랑계 염색 했던 은색이 있음. 코가 얼굴에 비해 조금 큰 편임.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이것은 확실히 없음, 그러나 청바지 어딘가가 찢어진 것은 확실함)>

또 한 명은 어땀더라?

민국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기억나지 않았다. 얼굴도 옷차림도…… 그러나 길에서 마주치면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국은 노트에 <아파트 경비아저씨>라고도 적어 넣었다.

그 날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를 세우고 있는데 경비아저씨가 다가왔다.

“자전거를 새로 샀구나?”

경비아저씨는 민국의 자전거를 이리저리 만져보았다.

“자물통 꼭꼭 채우고 다녀라. 이런 새 자전거만 훔쳐가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 뭐든지 잃어버린 사람이 죄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단속을 하겠지만 너도 오면가면 감시해라, 알겠냐.”

경비아저씨 말이 아니더라도 사실 걱정스럽기는 했다. 전에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잃어버린데다가, 새로 산 자전거가 너무 눈에 띄다보니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었다. 그렇다고 5층이나 되는 집 안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일. 웬만한 만능키로도 열 수 없고 절단기로도 끊을 수 없는 강철케이블 자물쇠를 산 것도 그래서였다.

그들 말고 자전거가 새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또 있는가?

민국은 또다시 허공을 노려보다가 고개를 젓고 노트를 닫았다. 그들 외엔 더 이상 없는 것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민국은 다시 앉아 노트를 열었다.

몇 사람이 더 있다.

<한정석, 차경애, 한정욱, 한민국.>

민국은 그 글자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픽 웃었다. 아버지, 어머니, 삼촌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국 자신의 이름까지 쓰는 것은 조금 너무한 느낌이었다. 그래도 통과시켰다. 자신의 행동까지 감시하는 것, 이것 역시 탐정의 기본자세였다.

단서를 찾아서

자전거 보관소는 여전히 어수선하고 무질서했다. 몇 대는 쓰러져 있고, 또 몇 대는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었다. 비를 막기 위해 씌운 천막은 귀퉁이가 찢어져 너털거리고 있었다. 경비아저씨가 가끔 손을 보지만 낡은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이러니 자전거가 자주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허술한 곳은 범인의 표적이 되기 쉽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나무동치나 계단 난간에 묶어 두기도 한다.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고속도로가 막힌다고 혼자 갓길로 주행하는 사람과 다를 게 없었다.

민국은 범인이 이곳에 오는 단계부터 생각해보았다.

범인은 며칠 전부터 새 자전거를 눈여겨보았을 것이다. 민국을 몰래 미행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민국이 자전거를 세우고 자물쇠를 채우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 민국이 자물쇠를 채우고도 몇 번이나 뒤돌아서 확인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까지 알 것이다.

4월 30일에서 5월 2일 사이, 어느 날.

범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다가왔을 것이다. 안장을 쓰다듬으며 흐흐흐, 만족스러운 웃음도 지었을 것이다.

범인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낸다.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만능열쇠일 것이다. 절단기로 자물쇠를 잘랐다면, 현장에 자물쇠가 버려져 있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자물쇠는 어디에도 없었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범인은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짹짹 돌려댄다. 그러기를 몇 차례. 찰칵,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린다. 범인의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민국은 자전거에 훌쩍 올라타고 달려가는 범인의 모습을 떠올려보았다.

그렇게까지 하려면 아이들보다 어른일 확률이 높다. 게다가 초범이라기보다 몇 차례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아이들이거나 초범인 경우엔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유 있게 자전거를 가져가긴 힘들 것이다.

민국은 노트를 꺼내 <재범 혹은 어른>이라고 썼다. 그리고 다시 바지 뒷주머니에 찔러 넣고 아파트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인근의 자전거포를 수색할 차례였다. 재범들은 자전거를 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보다 돈이 목적이니까. 그러므로 스포츠용품점이나 자전거포, 벼룩시장 등을 뒤져보는 것도 괜찮다.

5월 들어서 날이 무척 더웠다. 신발 밑창에 닿는 보도블록이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느낌이었다. 바람 속엔 매캐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국은 얼굴을 찡그리고 잠깐 숨을 멈췄다. 딱지가 앉은 무릎이 아팠다. 상처가 많이 아물긴 해도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져 남모르게 다리를 절어야 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로 들어서자 냄새는 좀 덜했다.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이 동네는 낮은 산을 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가 별로 없어 공기가 한층 맑았다. 게다가 산 중턱에 약수터가 있어서 아파트 사람들은 이쪽으로 산책을 자주 하곤 했다. 민국도 아버지를 따라 몇 번 와 본 적이 있었다.

여기 어디쯤에 있을 텐데?

민국은 작은 편의점 앞에서 두리번거렸다.

야트막한 언덕을 오르자 골목 입구에 자전거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낡은 건물 위에 ‘광주철공소’란 간판이 붙어 있었다. 그 밑엔 자전거 오토바이 수리, 각종 가전제품 수리, 라는 글씨도 쓰여 있었다. 고장 난 물건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수리하는 곳 같았다.

자전거들은 모두 낡은 것들이었다. 유리문 안쪽에는 새 자전거들도 있었다. 바퀴와 안장, 철근 같은 자전거 부속들도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다. 부서진 텔레비전이며 오디오, 스피커 따위도 보였다.

민국은 가게 안쪽에 있는 자전거들을 꼼꼼히 살폈다. 거기 민국의 자전거가 섞여 있을 지도 몰랐다. 사용한 지 열흘밖에 안 되었으니 새것들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국의 자전거와 닮은 것은 없었다.

“자전거 사불라고?”

주인남자가 다가와 물었다. 말투로 보아 이 지역 토박이가 분명했다.

“아뇨. 그냥 구경만 좀 하려고요.”

“안에도 있을게 들어가 찬찬히 구경 하거라.”

주인남자는 들고 있던 철근을 구석에 휙 던지며 손을 탁탁 털었다. 덥수룩한 머리에, 꼬질꼬질 기름때가 묻은 얼굴이었다.

“혹시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민국이 말하자 주인남자가 뭘테?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저 혹시요……”

그렇게 말해놓고 민국은 후회했다. 며칠 전에 자전거를 팔러 온 사람이 있었느냐고 묻고 싶었는데, 순순히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았다.

“혹시 여기에 자전거를 팔 수 있나요? 제 자전거를 팔려고요.”

주인남자가 민국을 쳐다보았다. 민국은 저도 모르게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아그들 자전거는 안 사니까, 자전거를 팔아볼라든 느이 아버지나 어무니하고 같이 오너라.”

주인남자는 통명스럽게 말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국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자전거를 훔쳐 파는 아이로 보였을 수도 있었다. 이곳은 훔친 물건을 사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인상은 험해도 양심은 있는 사람 같았다. 그렇지 않다면 대번 물건을 먼저 가져와 보라고 은밀하게 말했을 것이다.

민국은 큰길로 나와 다시 걸었다. 언덕 아래로 5분 쯤 건다보면 자전거포가 하나 더 있었다. 거기는 버스정류소근처라 오며가며 자주 보는 곳이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새 제품만 취급하는 곳이라 그곳에 자전거를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 그래도 가 볼 생각이었다. 예외란 어디에나 존재하는 법이니까.

가구점들이 밀집해 있는 이 거리는 늘 시장통처럼 붐볐다. 가게들마다 인도에까지 물건들을 잔뜩 내놓고 있었다. 이 쪽 길을 지나칠 땐 꼭 장애물 경주를 하는 기분이 들었다.

차도엔 크고 작은 자동차들이 뒤엉켜 있었다. 어디에 접촉사고라도 있는지 교통경찰들이 호각을 뿜뿜 불어대었고, 누군가가 신경질적으로 클랙슨을 울리기도 했다. 어디선가 앰블런스 소리도 들려왔다.

민국은 얼굴을 찌푸렸다. 이 도시는 매일 이렇게 복잡하고 소란했다. 어머니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면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어휴, 아무래도 여기보다 더 시골로 내려가던지 해야지, 여긴 정말 너무해.”

아버지는 달랐다.

“여그가 뭐담시 싫은가? 난 누가 뭐라혀도 여그가 좋으께 가려거든 당신이나 혼자 실컷 가부리랑께.”

아버지는 평소 잘 쓰지 않는 사투리까지 써가며 장난말처럼 말하곤 했지만,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민국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 도시를 사랑하셨다.

민국이 태어나기 전, 이 도시엔 커다란 전쟁이 있었다. 6.25 전쟁 말고, 시민들과 군인들이 서로 적이 되어 총과 칼로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민국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군인들이 시민들을 공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실제 사건이라고 했다. 그것도 민국이 사는 아파트 주위에서 말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와 삼촌도 그 중의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었다. 아버지와 삼촌을 생각하면 민국은 가슴 한 칸이 묵직하게 아파왔다. 그러니 민국 역시 간접적인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었다.

“야, 민국, 대한민국!”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민국은 걸음을 멈췄다. 근희가 웃으며 뛰어 오고 있었다. 노란 반바지에 뒤로 젖혀 쓴 모자 때문인지 오늘따라 더 어려 보였다.

“어! 장금이가 웬일?”

장근희는 성격이 명랑한 친구였다. 1학년 때부터 같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는데, 다른 애들에 비해 좀 어려 보이는 아이였다.

“어디 가니?”

민국이 물었다.

근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등에 멘 가방을 보여주었다. 인라인스케이트 가방이었다.

“이 더운데 웬 스케이트?”

“넌 이열치열이란 말도 모르니? 이렇게 더운 날엔 땀을 빼야 시원한 거야. 그나저나 아까 너한테 전화했었는데 안 받아서 혼자 가는 길이었어. 넌 자전거 타러 안 갈래?”

“난 땀 흘리는 거 싫어 해.”

“새 자전거 놔뒀다가 뭐하려고 그러니? 이따가 석우도 자전거 타고 온다던데.”

“너희들끼리 놀아. 난 지금 좀 바쁘거든, 안녕!”

민국은 얼른 주유소 골목으로 꺾어지며 손을 흔들었다.

피, 근희가 서서 구관조처럼 입을 삐죽 내밀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잖아.

민국은 근희가 자전거 얘기를 꺼낼 때 뜨끔 했다고 생각했다. 말해 줄 걸 그랬나? 하지만 아직 일렀다. 사건의 실마리가 잡히면 모를까, 지금은 아니었다.

앞에서 리어카가 다가와 민국은 옆으로 비켜섰다. 부서진 텔레비전과 종이 박스, 쇠붙이 따위를 실은 리어카였다. 부서진 텔레비전과 종이 박스, 쇠붙이 따위를 실은 리어카였다. 몸집이 왜소한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노인의 몸에서 땀 냄새가 시큼하게 풍겼다.

리어카가 지나갈 때까지 비켜 서 있던 민국은 다시 버스정류소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생각보다 꽤 먼 느낌에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다. 그러나 몇 걸음 더 옮기던 민국은 문득 멈춰 섰다. 뒤를 돌아보았다. 리어카가 보이지 않았다.

민국은 리어카가 사라진 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조금 전 리어카가 지나칠 때, 종이박스 밑에서 얼핏 자전거 바퀴를 본 것 같았다. 바퀴살엔 케이블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던 것도 같았다. 그 자물쇠는 민국의 것과 비슷한 색깔이었다.

리어카는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민국은 뛰기를 멈추고 천천히 리어카를 따라갔다. 리어카를 밀어 줄까 하다가 관두었다. 리어카 주인에게 얼굴을 알리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았다.

리어카엔 분명 자전거 바퀴가 실려 있었다. 자물쇠라고 생각했던 것은 쇠파이프 조각이었다. 민국은 리어카를 따라가 보자고 생각했다. 자전거 바퀴가 버려지기엔 아까울 만큼 새것이었다. 누군가가 자전거를 분해해서 판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자전거를 찾다

리어카가 멈춘 곳은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진 야산 기슭이었다. 언뜻 쓰레기장처럼 보였는데, 아니었다. 파이프와 거꾸집 따위로 얼기설기 세운 울타리 안엔 플라스틱과 종이, 녹슨 쇠붙이들이 쌓여 있었다. 재활용품들을 수집하고 파는 곳 같았다.

구석엔 작은 컨테이너가 있었다. 빨갭게 녹슬고 찌그러진 컨테이너였다. 노인은 거기서 생활 하는 모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노인은 컨테이너로 들어갔다.

민국은 몸을 낮추고 울타리에 뚫린 구멍으로 안을 둘러보았다.

노인은 비닐 끈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리어카에서 물건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종이류는 끈으로 묶어 차곡차곡 쌓아두고 망가진 텔레비전은 구석으로 획 집어 던졌다. 가만히 보니 노인은 왼팔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고, 손엔 흰 장갑을 끼고 있었다.

플라스틱과 유리병을 다 꺼낸 뒤에 자전거 바퀴를 꺼냈다. 바퀴살에 햇살이 번쩍번쩍 튕겨 나갔다.

저런 새것을 어디서 주워 왔을까?

민국은 좀 더 잘 보기 위해 자세를 옮겼다. 그때 노인이 민국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크!

민국은 순간적으로 몸을 움크렸다.

무슨 기척을 느낀 것일까. 노인은 민국 쪽을 한참 쳐다보았다. 민국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도망갈까? 민국은 육상 선수처럼 뛰쳐나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노인은 쳐다보기를 멈추고 다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휴우.

민국은 가슴을 쓸었다.

물건을 다 내린 노인은 잠시 앉았다가 빈 리어카를 끌고 다시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

민국은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다.

리어카가 조금 전 왔던 길로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노인의 모습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던 민국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

바깥에서 보는 것과 달리 안은 넓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물건들은 모두 재활용 될 것들이었다. 종류별로 차곡차곡 쌓아둔 걸로 보아 노인은 세심하고 깔끔한 성격일 것 같았다. 까다롭기도 할 것 같았다.

민국은 쇠붙이를 모아둔 곳으로 갔다. 자전거바퀴는 거기 놓여 있었다. 바퀴 위엔 철근토막들이 놓여 있었다.

민국은 철근을 치우고 바퀴를 꺼내 보았다. 바퀴살이 두어 개 부러지긴 했지만 다른 곳은 흠집 하나 없었다. 자전거 회사 상표 따위가 붙어있을까 했지만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바퀴가 민국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민국은 바퀴를 제자리에 놓고 그 위에 철근들을 올려놓았다. 컨테이너 옆에 낡은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으로 다가간 민국은 깜짝 놀랐다. 그 자전거 뒤쪽, 컨테이너 차양 밑에 수많은 자전거가 뒤엉켜 있었다. 이게 웬 자전거들이지?

민국은 자전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휘어진 핸들, 찌그러지고 핑크 난 바퀴, 숨이 다 드러난 안장 등, 성한 것이 하나 없었다. 이것저것 들춰보고 만져보던 민국은 그 속에서 낫익은 자전거를 하나 발견했다.

T자 모양의 핸들 아래에 감겨져 있는 초록색 테이프!

분명 민국의 자전거였다. 지난 가을, 이 자전거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이 잡듯 뒤지다가 결국 포기 하고 말았던 그 자전거, 아직 민국의 사진 노트에 ‘미결’ 상태로 남아 있던 그 자전거가 분명했다.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민국의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다. 어쩌면 노인은 자전거들을 훑치러 다니는 게 직업일 수 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것인지도 몰랐다. 돌아다니면서 자전거들을 봐 두었다가 적당한 시간에 이곳으로 끌고 오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플라스틱 물병보다 자전거가 값이 훨씬 더 나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자 화가 났다. 민국은 그 자전거를 끌어냈다. 자전거는 새빨강게 녹이 슬고 아예 굴러가지도 않았다. 그래도 수리 점에 맡기면 탈 수 있을지도 몰랐다. 바퀴를 갈고 녹만 제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았다.

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전거 수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찾기 위해 애를 태웠을 텐데.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까?

그러나 민국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어 이렇게 썼다.

<노인은 자전거 도둑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아직 정확치 않다. 범인으로 단정 지으려면 확실한 단서를 잡아야한다. 다시 말해 노인이 자전거를 훑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해야 하는 것이다.>

민국은 자전거를 끌고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

자전거 수리점으로 가려던 민국은 잠시 망설였다. 근처에 자전거를 수리할 만한 데라곤 아까 들렀던 광주철공소 밖에 없었다. 버스정류장 쪽에 있는 자전거포는 수리보다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광주철공소로 가긴 좀 뒤편했다. 아까 자전거를 팔려고 한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주인남자는 이까지 고물 자전거를 팔려고 그랬냐고 생각할 텐데.

민국은 한 손으로 턱을 만지며 잠시 생각한 뒤 자전거를 끌고 걷기 시작했다. 광주철공소로 갈 생각이었다.

까짓것. 뭐든지 부딪혀 보는 거야!

자전거에선 연신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바퀴가 모두 핑크가 나서, 굴러오는 게 아니라 아예 끌려오고 있었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잔뜩 내려 앉아 있었다. 그래서인지 후덥지근했다. 5월인데도 완전히 여름 날씨였다. 목덜미엔 땀이 흥건했고 목도 말랐다. 하지만 아버지께 비한다면 이런 고층은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허구한 날 거친 용의자들과 입씨름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하루가 멀다 하고 밤을 새우는 아버지를 볼 때 민국은 화가 날 지경이었다. 잠을 잘 때도 항상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잤다. 24시간 모두가 비상 대기였다. 왜 세상은 이렇게 범뢰가 많은가. 왜 평화스럽지 못한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버지가 그토록 고생하는데.

광주철공소 앞으로 다가가자 주인남자가 먼저 물었다.

“아까침에 니가 말해분 자전거가 요거냐? 요것을 팔라고야?”

“아까 말한 건 이게 아니고요, 이건 옛날에 타던 거거든요.”

주인남자는 민국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자전거를 팔아볼라면 느그 어무니랑 같이 오라고 했는디.”

“그게 아니라, 이건 수리만 하려는 거예요.”

“수리만 한다고야? 수리해서 뭐할라고?”

“그냥 타려고요.”

“이거 증말 니꺼 맞냐?”

주인남자는 뭔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국을 바라보았다. 이런 일쯤은 보지 않아도 안다는 눈빛이었다.

“제 자전거 맞아요. 정말이에요. 제 친구들이나 저의 어머니께 확인을 해도 돼요. 여기 핸들 밑에 테이프 보세요. 여기 노트에도 테이프가 붙어 있잖아요. 제 물건이라는 표시거든요.”

민국은 뒷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다. 주인남자의 인상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여기 놔두고 가라. 근디 찾으러 올라면 느 어무니랑 같이 오거라, 알겠지잉?”

민국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주인남자는 자전거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민국이 들으라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고치는 값이 더 든디.”

미행

이틀 동안 민국은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했다. 계속해서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비가 와서 너무 아까웠다. 학교에 갔다 오는 길에 우산을 받쳐 들고 노인의 컨테이너에 가보았다.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빈 리어카만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었다.

비가 그칠 때까지 ‘내근’ 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넌 왜 만날 외근이니?”

밖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바깥에만 나다니지 말고 집 안에서 공부도 좀 하라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공부란 꼭 책상머리에서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책상 앞에 앉아 만화책을 읽어도 공부하는 걸로 알 정도니까.

아버지는 달랐다.

“공부란 원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놀아.”

민국도 그 말에 동감이었다. 머리로 외운 것들은 금방 잊어도, 몸으로 익힌 것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있었다. 자전거, 스케이트, 수영…… 심지어 친구들 전화번호와 컴퓨터키보드까지 손가락이 다 외우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내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머리와 몸은 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사건을 풀어가는 탐정이 되려면 더욱 그렇다. 지금 민국이 책상머리에 앉아 책을 들여다 본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민국은 그동안 밀려던 공부도 좀 하고, 조금 있다가 어머니 가게에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얼마 전 시장 입구에 조그만 분식집을 내었다.

“아빠 힘만으로는 우리 민국이 장가도 못 보내겠어.”

어머니는 그런 이유를 댔지만 사실은 민국 때문이 아니라 삼촌 때문이었다.

마흔이 넘은 삼촌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했다. 물론 벌여 놓은 것도 하나 없었다. 그러니 누구라도 삼촌을 도와야 할 상황이었다.

삼촌은 왼쪽 다리가 없다. 다행이도 무릎 아래여서 의족을 하면 티도 안 나고 걸을 수도 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삼촌은 의족을 하려하지 않았다. 무릎 아랫단을 고무줄로 묶고 목발을 짚은 채 절뚝절뚝 걸어 다니곤 했다. 요즘은 아버지가 사 준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게다가 병어리처럼 말도 하지 않는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입을 닫고 사는 것이라고 해야 맞다. 웃지도 않고 말도 않고 거의 무표정으로 지낸다.

병원에서는 후천적으로 자폐증상이 생긴 거라고 했다.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유사 자폐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증상으로 말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정신적인 성숙도 멈추어 정신연령은 고작 열두 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국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동안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고 있지만 증상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상태가 급격히 좋아지기도 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또박또박 말도 하고 소리 내어 웃기도 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인 것이라. 기분이 좋을 땐 몸도 따라서 활력이 생기고, 그러다보니 말이 저절로 터지는 거라는데…… 그게 어쩌다 한 번씩이니까, 정육이는 겨우 어쩌다 한 번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도 되는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몇 달에 겨우 한두 번 기분이 좋아진다니, 정말 한숨이 나올 만도 한 일이었다.

삼촌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고모 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 민국의 집에선 일 년 가까이 머무르고 있는 중이었다. 그동안 민국은 삼촌과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했다. 얘기는커녕 얼굴도 서로 마주본 적이 없었다. 삼촌이 민국을 투명인간 보듯이 했기 때문이다. 어쩌다 눈이 마주쳐도 그냥 스윽 지나가거나, 뭐라고 말을 붙여도 묵묵부답이었다.

삼촌은 얼마 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가 며칠 째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늘 있는 일이고, 그러다가 언제나 그렇듯이 또 불쑥 나타날 테니까.

그리고 삼촌은 자기 방에 들어가 끄적도 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 씩 틀어 박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삼촌의 특기였다. 그러다 과자를 먹으며 만화책을 빌려다 보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버지는 삼촌을 결혼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다. 가정을 꾸리면 뭐든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신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머니가 분식집을 낸 것도 그래서였다. 삼촌에게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 줘야겠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를테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금 삼촌 구출 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었다.

민국 역시 뭐라도 돕고 싶었다. 하지만 뭘 어떻게 도와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어머니처럼 돈을 모을까? 삼촌의 보디가드를 하는 건 어때?……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 차림으로 삼촌 뒤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다 말고 민국은 픽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을 좇는 탐정이 되는 것도 삼촌을 위한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삼촌과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도 삼촌을 위한 일이 분명했다.

민국은 웬지 삼촌이 의심스러웠다.

자전거가 사라진 날 삼촌이 사라졌다. 삼촌이 나간 날 자전거가 사라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삼촌과 자전거가 함께 사라졌다. 자전거가 삼촌을 끌고 갈 수 없으니 삼촌이 자전거를 끌고 나갔을 것이다.

그 날, 민국은 거실에서 무릎의 봉대를 풀고 약을 바르고 있었다. 찢다 오므렸다 하는 곳이라 딱지가 잘 생기지 않았다. 딱지 떨어진 부분에서 붉은 진물이 배어나왔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던 삼촌은 민국의 상처를 보고 있다가 “으으으……” 하는 소리를 내다가는 도망치듯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삼촌은 분명 전동스쿠터를 타고 나갔다. 자전거보관소 옆에 늘 세워둔 스쿠터도 삼촌이 나간 날부터 보이지 않았다. 삼촌이 스쿠터와 자전거를 동시에 타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삼촌은 자전거라면 극도로 싫어하지 않은가.

새 자전거를 사왔을 때 민국은 삼촌에게 사랑을 했었다. 삼촌은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 있었다. 민국은 멀리서부터 달려와 삼촌 앞에 끼익 멈추어 섰다.

“이것 봐, 삼촌. 끝내주지 않아? 속도도 엄청나고 브레이크도 짱이야.”

그 순간 삼촌이 벌떡 일어섰다.

“치워!”

삼촌이 소리를 지르며 목발로 자전거를 퍽 밀어버렸다.

자전거는 맥없이 쓰러졌다. 체인이 빠지고 여기저기 상처가 났다.

민국은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못했다.

자전거 때문에 다리를 다친 삼촌의 심정은 알지만, 그때는 삼촌이 너무 미웠다.

혹시 삼촌이 자전거를 어디에 갖다 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팔았던가. 그러나 삼촌은 그럴만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 계획적으로 자전거를 훔쳐 팔기엔 지능이 너무 모자랐다. 그렇다면 삼촌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를 시켜야하는가. 아니었다. 아직은 모르는 일이었다.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았다.

비가 좀 굻는 것 같았다.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던 민국은 모자를 눌러 썼다.

밖은 상쾌했다. 우중충하던 건물과 나무와 도로가 깨끗해진 걸 보니 마음까지 개운해졌다.

민국은 우산을 받쳐 들고 버스 정류소 쪽으로 걸었다. 비가 오기 때문인지 정류소 앞에 있는 삼천리 자전거포는 문이 잠겨 있었다. 하지만 상점 유리를 통해 실내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똑같은 모양의 자전거들이 똑같은 자세로 줄지어 서 있었다. 세발자전거도 보였고, 킥보드와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 달린 것들은 모두 진열되어 있었다. 낡은 자전거는 취급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여기저기 둘러본 민국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어 이렇게 썼다.

<삼천리 자전거포는 해당 사항 없음>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민국은 몇 가지 의구심이 들었다. 리어카노인은 언제부터 그곳에 살았을까? 왜 거기서 혼자 살고 있는 것일까?

용의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었다. 아버지 같으면 대번 컴퓨터로 신원을 조회했겠지만, 민국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게 민국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명탐정이라면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건을 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가게에 도착했을 땐 비가 말끔히 그쳐 있었다. 유리문 위에 달린 차양에서 빗물이 푹푹 떨어지고 있었다.

“우리 민국 씨가 웬일이셔?”

어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활짝 웃었다.

“손님이 하나도 없네요?”

민국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와 앞자리에 앉았다.

“한창 바쁠 때는 지났지. 그나저나 넌 또 외근이니? 이런 날은 차분하게 책상에 앉아 교양도 좀 쌓지 않고.”

“이젠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걱정은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시라니까요.”

“근데 점심은 먹었니? 뭘 좀 먹을래?”

“돈가스 앤 라이스”

“돈가스는 살찌는 음식이야. 김치찌개는 어때?”

“난 살 좀 쪼야한다니까요. 애들이 학다리라고 놀려요.”

“학다리가 얼마나 늘씬하고 멋지니? 짧은 참새다리보다 낫지. 근데 무르팍은 좀 어때니? 약 좀 바르고 있어?”

“괜찮아요. 다 나왔어요. 아무튼 돈가스 주세요. 외상 안 할 테니까.”

어머니는 주방으로 갔다. 민국은 턱을 쾅 채 실내를 두리번거렸다.

벽엔 빼곡하게 사진이 걸려 있었다. 조잡하고 흐릿한 흑백사진들이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착잡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 탱크를 앞세우고 거리에 진입한 군인들, 군인의 곤봉에 머리를 맞고 있는 청년, 옷이 벗겨진 채 트럭에 실려 가는 젊은이들,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질질 끌려가고 울부짖고, 사방으로 도망치는 시민들……

바로 아버지가 끔찍이 사랑하는 이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바로 유리문 저쪽 거리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했다.

민국은 사진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상상할 수 없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런 평화스러운 도시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가게에 그 사진들을 걸어놓은 이유는 아버지의 아이디어였다. 한 번이라도 더 보며, 그 때의 일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였다. 사람들은 음식을 기다리면서 혹은 밥을 먹으면서 그 사진을 보곤 했다.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민국의 심정과 똑같은 것이었다.

비가 내린 뒤라 거리는 매우 시원해 보였다. 재래시장 근처여서 오가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길 건너는 은행이 있고, 그 옆쪽으론 약국이 있고 그 뒤로는 공원이 있다.

비가 그친 지 10분도 채 안 되었는데 공원엔 아이들이 북적였다. 유모차에 아이를 싣고 데려온 사람도 있었다. 그러고 보니 비 온 뒤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햇볕이 따갑게 비치고 있었다.

만일 저 공원에 장갑차가 등장한다면…….

뜬금도 없이 민국의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쳐갔다. 장갑차의 육중한 바퀴가 잔디를 짓밟고 평평 포탄을 쏘아대며, 총소리와 최루탄연기가 거리에 퍼진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그건 사실이였다. 저 공원 앞으로 장갑차가 지나가고, 이 거리가 온통 피로 물들었다.

사진 속엔 저 공원이 작은 야산처럼 보였다. 백화점이 있는 건물은 넓은 공터였고, 그리고 재래시장은 그때도 시장이었었다. 흑백사진인데다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했지만, 그때 당시의 처참함은 그대로 전해져 왔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어머니가 돈가스를 내오며 물었다.

“돈가스를 만드는데 몇 분이나 걸리나 재보고 있었어요.”

“몇 분이나 걸렸는데?”

“16분 25초.”

“땡이다, 애. 돈가스 튀기는데 9 분, 접시에 담는데 2 분, 해서 11 분밖에 안 걸렸다.”

“배고픈 사람에게 11 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알아요? 이렇게 늦어서 손님이 없는 거라고요.”

“어이구, 누가 장사꾼 아들 아니랄까봐. 자고로 빨라서 좋은 거 하나도 없다. 배고파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민국이 나이프로 고기를 썰자 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서 일을 했다. 어머니가 해준 것이어서 유난히 맛이 있었다.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먹던 민국은 별안간 포크를 탁 놓았다. 그리고 유리벽 가까이 얼굴을 대고 밖을 내다보았다. 분명 그 노인이었다. 리어카노인!

길 건너 약국 앞에서 노인이 종이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있었다. 약사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노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었다.

“저 이만 먹을 게요.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애 좀 봐. 갑자기 왜 그러니? 맛이 없니? 왜 그래? 무슨 일……”

어머니 얘기도 다 듣지 않고 민국은 유리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어머니도 따라 나왔다. 걱정 말라는 뜻으로 민국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주었다. 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민국은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약국 골목으로 갔다. 그리고 전봇대 뒤에 서서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할아버지 이걸 가져가면 안 된다니까요.”

약사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국 문 앞에 쌓아둔 종이 박스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노인은 대꾸도 없이 그 종이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있었다.

“이걸 다른 분이 이사할 때 쓰려고 가져가기로 한 거예요. 이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약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노인은 여전히 묵묵부답. 기어코 종이박스를 리어카에 다 싣었다. 약사는 팔짱을 낀 채 지켜보다가 웅 소리가 나게 약국으로 들어가 버렸다.

완전히 강탈이군!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저런 식으로 물건을 가져가니, 사람이 없을 때는 어쩔겠는가.

노인은 천천히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다. 여기서 꽤 멀다면 먼 거리인데, 리어카를 끌고 갈 모양이었다. 민국은 미행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끝까지 한번 따라 가 보자.

리어카는 인도를 따라 천천히 굴러가다가 골목으로 꺾어졌다. 주택가 골목이었다. 노인은 전봇대 근처 쓰레기 더미 옆에 리어카를 세웠다. 비가 온 탓인지 쓰레기들은 더러운 물로 흥건했다. 노인은 쓰레기를 이리저리 들춰보았다. 새까만 과일들이 화려르 날아올랐다. 노인의 손에 잡힌 것은 찢어지고 부서진 우산이었다.

노인은 우산과 낡은 책 몇 권을 골라 리어카에 싣었다. 리어카가 다시 굴러갔다. 민국 역시 조심스럽게 뒤따르기 시작했다.

이번에 멈춘 곳은 문방구 앞이었다. 노인은 문방구 앞의 쓰레기통에서 음료수 캔들을 꺼내어 리어카에 싣었다. 문방구주인이 신문더미를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실어 주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문방구주인이 말을 건넸지만 노인은 묵묵부답이었다.

노인은 다시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왼팔을 쓰지 못하면서도 리어카는 아주 잘 끌었다.

하지만 오르막길에선 애를 먹기 시작했다. 노인이 끄꿍대며 끌어도 리어카는 잘 굴러가지 않았다.

민국은 리어카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다. 노인이 힐끔 뒤를 쳐다봤다. 민국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밀기만 했다. 경사가 완만한 곳에 이르자 노인은 리어카를 세웠다. 민국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제

아니었다. 민국을 쳐다보는 둥 마는 둥, 노인은 가쁜 숨만 쉰 채 물아쉬었다.

탁탁.

민국은 손을 털고 가던 길을 가는 척했다. 노인과 눈이 슬쩍 마주친 것 같기도 했다. 희끄무레하게 백태가 낀 눈. 깊은 주름, 검은 얼굴. 게다가 귀와 목 주위엔 손바닥만 하게 붉은 흔적이 있었다. 땀으로 번들대는 그 흉터는 비닐을 녹여 붙인 것처럼 흉측해 보였다.

민국이 뒤를 돌아다보니 노인은 저만치 떨어져서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저렇게 해서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집으로 갈 모양이었다. 꽤 먼 거리인데.

리어카를 다시 밀어줄까? 하지만 그랬다간 일을 모두 망칠 수가 있다. 추측대로라면, 노인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쾌썸하고 파렴치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은가. 힘들어도 싸다.

리어카는 천천히 구르다 서고, 섰다가 다시 굴렀다. 노인의 새까만 목덜미에서 번질번질 땀이 흐르고 있었다. 민국 역시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고 목도 말랐다.

노인은 학교 앞 가게와 주유소 주위에서 이것저것 주워 담았다. 리어카는 산더미처럼 수북해졌다. 노인은 마을 입구 교회 앞에 리어카를 세웠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국은 건물 뒤에 몸을 숨긴 채 노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노인이 교회에서 나왔다. 손에 운동화 한 켤레가 들려 있었다.

노인은 리어카에 다가와 자신의 신발을 벗었다. 지금 보니 노인의 신발은 신발이라기보다 걸레에 가까웠다. 서로 짝도 맞지 않았고, 한 짝은 밑창이 떨어져 너덜거렸다. 노인은 신고 있던 신발을 리어카에 쭈셔 넣고, 들고 온 신발을 신었다. 신발은 꽤 커보였지만 그래도 그게 나아 보였다. 저 운동화는 누가 준 것일까? 혹시 남의 것을 몰래 들고 온 것은 아닐까?

민국은 노트와 볼펜을 꺼냈다.

<운동화가 누구 것인지 확인할 것!>

덜퍽 덜퍽. 신발이 커서 노인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런 소리가 났다. 저러다 발뒤꿈치가 다 벗겨지고 말 텐데. 그러나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걸었다.

민국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지나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서기 전에 노인은 또 한 번 멈춰 섰다. 제과점 앞이었다.

노인은 제과점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노인은 빵 두어 개와 우유를 들고 나왔다. 돈을 주고 산 것일까?

노인은 제과점 앞에 쭈그리고 앉아 빵을 먹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빵과 우유를 먹은 노인은 다시 일어났다. 리어카가 굴러가자 민국은 그 제과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막대아이스크림을 하나 고르고 주인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조금 아까 할아버지가 여기 자주 오시나요?”

주인여자는 왜 그런 걸 묻느냐는 표정으로 민국을 쳐다보았다.

“그냥 불쌍해 보여서요.”

민국이 말을 덧붙였다.

“가끔 들어와 빵을 사가곤 하지. 밥도 없이 빵으로만 사는 모양이야.”

“빵 값은 제대로 지불하나요?”

“넌 이상한 애구나? 왜 그런 걸 묻지?”

“그냥 잠깐 그런 의문이 든 것뿐이에요. 별 다른 뜻은 없어요.”

주인여자는 다시 한 번 민국을 쳐다보더니 말했다.

“처음엔 꼬박꼬박 내더니 언제부턴가는 그냥 빈손만 내민단다. 처지가 딱해 보여 요새는 그냥 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저 양반, 양심은 있는지 매일은 찾아오지 않아. 그게 다행이지 뭐니. 근데 넌 아무래도 참 이상해 보이는구나. 왜 그런 걸 묻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값은 여기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민국은 서둘러 제과점을 나왔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노인이 걸어간 골목으로 뛰어갔다. 노인은 벌써 야산자락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멀리 노인의 컨테이너박스가 보였다. 숨이 차는지 노인은 다시 한 번 쉬고, 또 다시 걸었다.

민국은 저번처럼 몸을 웅크리고 울타리 안을 들여다보았다. 노인은 쉬지도 않고 리어카에서 물건을 내리기 시작했다.

종이박스, 신문지다발, 헌 신발, 깡통…… 지난번과 별 다를 게 없었다. 그러나 맨 마지막 물건은 좀 달랐다. 쇠붙이와 작은 바퀴들…… 작은 T자 핸들로 보아 아이들이 타는 세발자전거가 틀림없었다. 부피가 크니까 하나하나 분해를 한 것 같았다. 노인은 수건으로 땀을 닦고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도 없이 피약별에 앉아 작업을 하는 노인의 몸이 유난히 작아보였다. 노인은 세발자전거 바퀴와 철근을 바닥에 놓았다. 컨테이너로 들어가 망치와 펜치를 가지고 나왔다.

민국은 손바닥으로 이마의 땀을 닦고 안경을 고쳐 썼다.

노인은 망치를 내리쳤다.

땅, 땅 땅.

망치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길게 울렸다. 휘어진 철근을 바로 잡는 모양이었다. 쓰지 못하는 왼팔 대신 두 발이 철근을 짊어고 고정하고 있었다.

전기드릴 소리, 망치 소리가 주위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덥고 지루해 민국은 그만 돌아갈까 생각했다. 이런 것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민국은 다시 쭈그리고 앉았다.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날, 아버지는 일주일이 넘게 용의자의 집 앞을 서성인 적도 있다고 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동차 안에서 새우잡을 자기도 했다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민국은 아버지가 매우 안쓰럽고 자랑스럽게 여겨졌다.

민국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노인은 여전히 철근과 바퀴를 망치로 때리고 자르고 조여댔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노인 앞엔 세발자전거 한 대가 서 있었다. 조금 낡아 보이긴 해도 충분히 탈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노인은 세발자전거 위에 올라탔다. 유난히 몸집이 작은 탓에 그런대로 안장에 몸이 얹혀졌다. 자전거가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피약별 아래 세발자전거를 타는 노인의 모습은 어린아이 같았다. 자전거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커다란 S자를 그리고 있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 되어 있었다. 자기 숨씨가 만족스러웠는지 입가엔 열은 웃음이 배어 있었다.

자전거에서 내린 노인은 손을 탁탁 털고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그리고 컨테이너 앞에 앉아 한참동안 자전거를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장기전이 될 것 같았다.

노인은 다시 일어섰다. 어디선가 페인트 깡통을 가져오는 걸 보면 자전거에 페인트를 칠 할 생각인 것 같았다. 노인은 깡통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깡통 안을 들여다보고 고개를 슬레슬레 저었다. 깡통이 비어 있는 모양이었다.

노인은 한참동안 깡통을 들여다보다가 결심이라도 한 듯 일어섰다. 그리고는 리어카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페인트를 구하러 가거나, 다시 리어카를 채우러 갈 모양이었다.

리어카가 산모퉁이를 돌자 민국은 천천히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 가까이서보니 세발자전거는 영성해보였다. 바퀴도 서로 제 짝이 아니고, 철근도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었다.

민국은 낡은 천막아래 자전거가 또 한 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 역시 낡은 것을 수리한 것처럼 보였다. 페인트가 채 마르지 않은 걸 보면 어제나 오늘 칠한 것 같았다.

노인은 생각보다 꽤 지능범일 수도 있었다. 자전거를 그냥 훔쳐올 경우 들통이 날 수도 있지만, 분해해서 실어오면 사람들은 고철을 신고 오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분해한 자전거를 조립하는 것은 마음만 먹는다면 민국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페인트까지 칠하면 감쪽같지 않은가.

아무리 생계가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먹고 산다니!

컨테이너의 출입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민국은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다. 쾌쾌하고 후덥지근한 공기가 확 끼쳐왔다. 어두컴컴한 실내. 냄비와 수저, 라면 봉지 따위가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다. 목이 꺾인 선풍기는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

여기저기 발자국이 있는 길로 보아 신발은 안에서 신은 모양이었다. 스티로폼으로 위에 펼쳐 있는 담요는 차라리 걸레라고 해야 할 것 같았다. 벽지도 바르지 않은 벽은 빨갭게 녹이 슬어 있었다. 인기척에 놀란 바퀴벌레가 재빠르게 기어 달아났다. 담요 옆에 노트 같은 것이 눈에 띄었다. 민국은 노트를 집어 들었다.

3200. 1005. 10350☆. 1710. 11500☆……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듯 꿈틀꿈틀,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만 잔뜩 쓰여 있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민국은 그 노트에 있는 숫자들을 대충 노트에 옮겨 적었다.

이건 무슨 암호일 수도 있다. 중요한 단서가 될지 모른다.

노트를 몇 장 넘기자 뭔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낡은 사진이었다. 넥타이를 맨 중년의 남자와 중학교 교복을 입은 박박머리 학생이 사진 속에 앉아 있었다. 둘 다 아무런 표정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중년 남자는 어딘지 낯이 익었다.

그 노인이었다. 좁은 이마며, 조금 튀어 나온 입, 유난히 길어 보이는 목. 노인의 젊은 모습이 분명했다. 넥타이를 매고 말쑥했던 모습을 보자 민국은 울컥 화가 치밀었다. 이중인격자, 파렴치한, 사이코패스란 단어가 떠올랐다.

조금 더 둘러보고 싶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수확이었다.

민국은 밖으로 나와 산자락을 타고 주택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돌아가는 길에 아까 그 교회에 들를 생각이었다. 교회에 들러 그 운동화에 대해 물어볼 생각이었다.

교회 앞까지 다가간 민국은 잠시 망설였다. 예배당도 사택도 모두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라도 보인다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 곤란했다. 그렇다고 초인종을 눌러 운동화에 대해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다. 아버지 같으면 수첩을 슬쩍 보여주면 될 텐데.

이게 아마추어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민국이 지금 어른이 아니라는 점, 그것도 약점이라면 약점이었다.

암호

“무슨 일이야? 너가 나한테 전화까지 하고?”

근희의 목소리가 수화기 속에서 쟁쟁 울렸다.

“그냥, 날씨도 좋고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데이트 신청?”

“알아서 생각해. 암튼 이따가 공원에서 보자고.”

전화를 끊고 민국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 근희 역시 자전거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어쩌면 그 자전거도 거기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근희는 어제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그 운동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노인의 노트에서 적어온 암호에 대해서도 슬쩍 물어볼 생각이었다.

3020. 1005. 10350☆. 1710. 11500☆……

어젯밤 내내 그 숫자와 씨름을 했지만 결국 포기를 하고 말았다. 이리저리 조합해 보고 뒤집어 보아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전화번호도 아니고, 혹시 훔친 자전거의 상품번호 같은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별표는 또 뭐란 말인가.

요즘 무리를 했더니 무릎이 더 아파왔다. 딱지가 생기긴 했지만 자꾸 떨어져 진물이 나왔다. 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았다. 붕대 위로 진물이 배어 나왔다.

밖으로 나가기 전 민국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거울 앞에서 안경을 고쳐 썼다. 오늘따라 거울이 보고 싶었다. 인상을 한 번 쓰고 활짝 웃어도 본 민국은 모자를 깊게 눌러 썼다.

일요일이라 공원엔 사람들로 붐볐다.

“한민국, 여기야.”

분수대 옆에서 근희가 손을 흔들었다. 펠벳바지에 노란 모자를 뒤로 젖혀 쓴 모습이 상큼해 보였다. 등 뒤엔 작은 가방이 매달려 있었다.

“자전거 타고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나왔어? 그 자전거 아껴뒀다 뭐 하려고 그러니?”

“저쪽 그늘로 좀 가자.”

“아휴, 무뚝뚝이. 남의 말에 대답부터 좀 해 봐라. 어? 근데 웬 디카? 나 사진 찍어 주려고?”

근희가 민국의 어깨에 걸린 디지털카메라를 보고는 손바닥으로 어깨를 툭 쳤다.

“꿈 깨서. 이걸 어디까지나 업무용이야.”

“업무용?”

민국은 대답도 하지 않고 느티나무 아래로 갔다. 작은 나무였지만 그늘도 좋고 사람도 없었다.

“이게 뭐 같으냐?”

나무 벤치에 등을 기댄 민국은 노트를 꺼내어 근희에게 보여주었다.

근희가 노트를 골똘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곤 고개를 갸웃.

“삼천이십, 천오, 만삼백 오십 별?…… 도대체 이게 뭐니?”

“나도 모르니까 너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잖아.”

“이 숫자가 뭐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이게 뭐냐는 거야. 이런 걸 왜 적었어?”

근희가 헛갈린다는 표정으로 민국을 바라보았다.

“나도 몰라. 밤 새 그거랑 씨름 하다가 내가 지고 말았어.”

“어디에서 베껴온 건데?”

“자전거 도둑 노트에서.”

“자전거 도둑?”

근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전거를 잃어버렸거든.”

“정말이니? 언제?”

“며칠 됐어.”

민국은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얘기해 주었다. 자전거를 잃어버린 날부터 리어카노인을 만났던 일, 그 노인의 집에서 수많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거기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자전거를 찾은 일, 그리고 노인의 노트를 들쳐보았던 일 등.

“정말 나쁜 사람이군. 경찰에 신고하자.”

“아니야.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면 벌써 받았어. 이건 내가 해결하고 말 거야.”

민국이 근희를 자리에 앉히며 말했다.

“그리고 너도 언젠가 자전거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지?”

근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거기에 네 자전거도 있는지 몰라. 시간이 된다면 나랑 같이 가볼래?”

“좋아. 지금 당장 출동하자.”

근희가 발탁 일어섰다. 민국도 따라 일어섰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너 주택가 입구에 있는 교회 다니지? 그 노인이 그 교회에서 운동화를 한 켤레 들고 나오는 것을 봤거든. 혹시 교회 사람들 중에 운동화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걸 좀 알아봐 줘.”

“좋아. 가는 길에 잠깐 들러볼게”

공원을 벗어나 주택가로 들어서자 교회 건물이 보였다.

“남자 운동화였겠지?”

“물론.”

“여기서 기다려 봐. 저기 사택엔 전도사님만 사시거든.”

근희는 민국을 교회 마당에 기다리게 하고 혼자 사택 쪽으로 걸어갔다.

민국은 디지털카메라에 교회의 모습을 한 컷 담았다.

잠시 후 근희가 나왔다. 근희는 걸어오면서 두 팔로 X 자를 그렸다. 민국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운동화는 전도사님이 버린 거래.”

“그럼 그 노인이 그 운동화가 버려진 걸 어떻게 알고 거길 들어갔지?”

“그 노인이 가끔 교회의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는 거야.”

“다른 잃어버린 물건은 없고?”

“글쎄, 그것까지는 못 물어 봤어. 운동화에 대해 물어보는데도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해서 혼났어. 마땅히 대답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냥 그 노인이 운동화를 들고 가는 걸 봤다고 했지 뭐.”

민국은 뒷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다.

<운동화는 연관 없음>

근희가 민국의 노트를 힐끔 들여다보았다.

“누가 형사 아들 아니랄까 봐, 완전히 수사반장이구나.”

“빨리 가 보자. 지금 시각이면 그 노인이 없을 확률이 높아.”

둘은 걸음을 빨리 했다.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서자, 광주철공소에 맡긴 자전거가 생각이 났다.

“내 옛날 자전거는 저기 위에 있는 철공소에 맡겼어. 그런데 그 철공소 주인이 내가 자전거를 훔쳐서 고치러 온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

“왜?”

“자전거를 찾으러 올 땐 어머니나 아버지와 함께 오래는 거야.”

“어른들은 다 의심이 많은 존재들이야.”

“음흉스럽고.”

“도둑질도 잘하고.”

“전쟁도 잘 일으키고.”

탁구 치듯 톡톡 말을 주고받다가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저기가 노인의 기지야.”

산모퉁이를 돌아 민국이 컨테이너를 가리켰다. 마당엔 리어카가 없었다. 노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다. 컨테이너는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문이 고장이거나 매일 열어두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웬지 으스스해.”

근희는 긴장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동그란 두 눈은 더욱 빛이 났다.

노인의 집에 다가왔을 때 민국은 몸을 낮추었다.

“리어카는 없지만 혹시 노인이 컨테이너 안에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잖아.”

민국의 말에 근희도 몸을 낮추고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따라왔다.

마당을 동그렇게 에워싼 울타리 밖에서 민국은 카메라를 꺼냈다. 컨테이너를 한 컷 찍어둘 생각이었다. 근희가 침을 꿀꺽 삼켰다.

찰칵!

셔터 내려지는 소리가 무척 크게 들렸다.

민국이 바닥에서 콩알만 한 돌멩이를 집어 들었다. 그리곤 컨테이너를 향해 획 던졌다.

딱!

컨테이너가 쇠소리를 냈다. 안에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들을 만한 소리였다. 잠시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민국은 돌멩이 하나를 더 던져보았다. 역시 소리가 났지만 잠잠했다.

“됐어. 나를 따라 와.”

근희는 몸을 바짝 움츠리고 민국의 뒤를 따랐다.

“무슨 도둑 소굴 같아.”

“이쪽으로 와 봐.”

민국은 근희를 컨테이너 뒤로 데리고 갔다.

“와, 세상에! 이게 다 훔친 자전거들이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자전거들을 보고 근희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기 네 자전거가 있나 찾아 봐.”

근희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자전거들을 살폈다.

민국은 근희가 잘 찾도록 쓰러진 자전거들을 일으켜 주었다. 자전거 역시 카메라에 담았다. 근희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다 그게 그거 같아.”

“그래도 잘 찾아 봐.”

“옛날에 타던 거라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너무 녹슬어서 뭐가 뭔지 통 구별이 안 가.”

민국은 일으켜 세웠던 자전거들을 다시 쓰러뜨렸다. 이것저것 깔끔하게 정리하는 노인의 성격을 보면, 있던 그대로 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암호가 적힌 노트는 어디에 있어?”

“그건 저 안에 있어. 한 번 볼래?”

근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국은 열린 문을 더 열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근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근희도 컨테이너로 들어갔다.

“빨리 보고 나오자. 혹시 노인이 올지 몰라.”

“신발을 벗어야 해?”

근희는 낮은 소리로 소근거렸다.

“그냥 신어도 돼. 노인도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것 같아.”

“노트는 어디에 있어?”

민국은 담요를 들춰다. 거기 노트가 그대로 있었다.

“잠깐만! 사진부터 좀 찍어 두고.”

찰칵, 찰칵.

민국은 창문 아래에 노트를 펴 놓고 두 번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 노트 갈피에 끼워져 있는 흑백 사진도 정면에서 카메라에 담았다.

“어머. 이게 그 노인 사진이야?”

근희가 사진을 집어 들며 물었다.

“맞아. 젊었을 때 사진 같아.”

“참, 어이가 없네. 왜 이런 말쑥한 사람이 남의 자전거를 훔쳐서 팔아먹고 그러지? 파렴치한 같으니라고.”

“이게 그 노트야.”

근희가 노트를 받아들고 들춰보는 동안 민국은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마당 쪽 창문으로부터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자전거를 세워둔 뒷마당 쪽은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거기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녹이 잔뜩 쓴 벽은 만지기만 해도 흙가루처럼 부서졌다.

민국이 침대로 쓰는 스티로폼을 들추려 할 때,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근희가 사진을 반으로 쭉 찢고 있었다.

“너, 그러면 안 돼!”

민국이 소리쳤다.

하지만 근희는 사진을 포개어 또 한 번 찢었다.

“괘씸하잖아.”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지금도 우린 좋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근희는 사진을 획 날렸다. 그리고는 구석에 놓여 있는 양은 냄비를 발로 걷어찼다. 냄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뒹굴었다.

“자리에 앉아!”

민국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왜 그래?”

근희가 눈을 뚱그랗게 떴다.

“셋!”

민국이 눈짓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근희가 발을 동동 굴렀다.

“조용히!”

민국이 침착한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밖을 내다보았다. 지금 밖으로 나가면 잡힐 게 분명했다. 노인을 떠밀고 도망을 친다고 해도 근희가 문제였다. 그렇다고 여기 그대로 있을 수도 없었다. 노인은 리어카를 세우고 컨테이너로 먼저 들어올 수 있었다.

“어떻게 해, 어떻게.”

근희는 과랗게 질려 있었다.

민국은 뒷마당 쪽의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지만 활짝 열어야 넘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창문은 녹이 슬어 열리지 않았다. 큰일이었다.

“빨리 어떻게 좀 해 봐.”

근희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민국은 더 힘껏 창문을 열어보았다. 끼익. 창문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민국은 출입문틈으로 마당을 바라보았다. 노인이 리어카를 세우고 컨테이너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끼익, 깝. 창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노인이 출입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창문이 확 열렸다. 민국은 근희를 번쩍 안아 창문 밖으로 넘겼다. 민국도 창문을 뛰어 넘었다.

“빨리, 날 따라와!”

민국이 근희의 손을 잡고 끌었다.

둘은 낮은 자세로 조심스럽게 움직여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 밖에서 보니 노인은 안에서 물병을 가지고 와 한 모금 마시고 나머지는 머리에 부었다. 머리칼에서 후두둑 물방울이 떨어졌다.

방바닥에 흩어진 사진 조각들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리고 창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도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다.

“휴, 십년감수했네.”

근희가 가슴을 쓸며 한숨을 내쉬었다.

“빨리 가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위험해.”

민국이 울타리를 따라 몸을 낮춰 살금살금 걸자 근희도 똑같이 따라했다. 산모퉁이쯤에서는 몸을 일으켜 세워 뛰기 시작했다.

한참을 뛰고 나서야 둘은 걸음을 멈췄다.

“사진을 찢지 말았어야 했어.”

민국이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런 영감탱이는 그렇게 당해도 싸.”

“아무리 흉악한 범인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그리고 아직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셈이지.”

“그 많은 자전거가 물증이 아니고 뭐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니, 분명 주워왔다고 할 테니까. 자전거를 훔치는 현장을 목격해야 해.”

“그러면 하루 종일 노인을 졸졸 따라 다녀야할 텐데.”

“그래, 맞았어. 내일부터는 노인을 따라다닐 거야. 그리고 훔친 자전거는 수리해서 어디엔가 팔고 있는 것 같아.”

그 현장도 카메라에 담아 줘야지.”

“아이고, 난 심장이 작아서 사양할래.”

“그건 알아서 해. 하지만 오늘 일은 비밀로 해 줘. 경식이나 석우한테도.”

“나야 자물쇠 입이니까 걱정 붙들어 매 두셔. 난 공원에서 조금 놀다가 갈 거야. 넌?”

민국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집에서 할 일이 많아.”

“넌 매사 아이답지 않아서 탈이야.”

“지금 네 말도 애답지 않은 것 알지?”

민국은 근희에게서 멀어지며 손을 흔들었다.

근희가 입을 삐죽 내밀며 서 있었다.

아버지와 경주

오늘은 일요일, 모처럼 아버지가 쉬었다. 해가 중천에 뿔는데도 아버지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동안 쌓인 피로를 잠으로 풀고 있는 중이었다. 아버지의 유일한 취미는 침대 깊어지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 일이다.

“아빠 일어나시기 전까지 조용히 하는 거야, 알았지?”

어머니는 가게에 나가기 전, 민국에게 주의를 주었다.

“일어나시면 찌개 좀 데우고, 냉장고에서 반찬도 좀 내 놓고.”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걱정 말고 빨랑 가시기나 하랑게요.”

“어휴, 이 녀석이 정말. 엄마를 막 내 쫓네.”

어머니가 알밤을 먹이는 시늉을 하자 민국은 얼른 현관문을 닫았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방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나왔다.

“어? 일어 나셨어요?”

“내가 또 늦잠을 자부렀네?”

“더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오랜만에 우리 민국이랑 좀 놀아야 쓰지 않겠냐. 엄마는 왜 이렇게 빨리 나간다니?”

“지금 이른 시간 아니에요. 열 시가 넘었는데. 빨리 씻고 아침 드세요.”

“아이고, 또 우리 아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겠구나.”

아버지가 길게 기지개를 뻗으며 핸드폰을 집어 들었다. 잠을 자는 동안 전화가 왔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눈 뜨자마자 전화를 확인하는 것은 아버지의 오랜 버릇이었다. 그러다 급한 사건이라도 터지면 밥을 먹다가도 부리나케 달려가곤 했다.

“오늘은 날이 좋네? 이런 날은 엄마 가게도 닫고 함께 공원이나 가는 건데.”

민국이 밥을 차리는 동안 아버지는 옷을 갈아입고 베란다에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민국은 찌개를 데워 식탁 위에 올렸다.

“아들이 차려주는 밥이라 더 맛있네. 그나저나 삼촌은 아직 안 왔니?”

아버지는 찌개에 밥을 말아 후루룩 후루룩 들이켰다.

“아직 연락도 없어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별일 없을 거다. 그나저나 오늘 민국은 뭘 할 거지? 아빠랑 자전거나 타러가는 건 어때?”

민국은 이크 싶었다.

“자전거가 한 대 뿐이라 재미없잖아요. 이런 때를 위해 아빠용 자전거도 하나 장만해 놓는 걸 그랬어요.”

“아빠가 시방 땀 좀 빼고 싶어서 그런디, 번갈아 타볼면 안 될까? 내가 탈 때 너는 뛰고, 내가 탈 땐 아빠가 뛰고.”

“그러지 말고 집에서 푹 쉬세요. 그동안 피곤하셨잖아요.”

“이상하네. 평소 너답지 않고. 왜 자전거 타는 게 싫으냐?”

아버지가 민국의 표정을 슬쩍 훑었다. 역시 형사다웠다. 벌써 상대방의 마음을 눈치 챌 걸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들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이따가 어머니 가게에서 일 좀 도와주려 해요. 휴일 오후엔 참 바쁘거든요.”

“우리 민국이 크긴 많이 컸구나. 엄마 걱정도 다 하고, 좋다. 이따가 아빠랑 같이 가게에 출동하자.”

“우리가 나타나면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요.”

“왜?”

“공짜 손님이 왔다고.”

아버지가 코를 찡긋하며 웃었다. 아버지는 오늘 따라 기분이 좋아 보였다. 뽀죽뽀죽 돈은 수염만 깎는다면 더 좋아 보일 것 같았다. 민국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버지는 욕실로 가서 면도를 하고 머리도 감았다.

민국은 소파에 앉아 노트를 들여다보았다. 노트엔 짤막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입 조심!>

어젯밤에 쓴 것이었다.

어제 저녁, 경식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너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면?”

경식은 대뜸 자전거 얘기부터 꺼냈다.

*

“누가 그래?”

“다 아는 수가 있지. 그래서 범인을 쫓고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우리가 좀 도와줄까?”

“휴, 장금이를 믿은 내가 바보지.”

“장금이 탓만 하지 말어. 어차피 비밀은 네 입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아무튼 내일부터 나도 수사에 협조해 줄게.”

“노우, 사양하겠어. 그리고 진짜로 나를 돕고 싶으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도록 해 줘.”

“그야 걱정 말어. 내 입이야 자물쇠 입이니까.”

“장금이라도 그렇게 말했거든.”

“어쨌든 장금이하고 석우 나, 이렇게 셋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 줄 테니까, 언제든지 부탁하라고.”

경식이 말은 틀리지 않았다. 장근희를 탓할 필요가 없다. 비밀은 민국 입에서부터 깨졌으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혼자 스스로 해결한다고 다짐했는데, 장근희를 끌어들이는 것부터 잘못이었다. 지금부터라도 입 조심을 해야 할 일이다.

민국은 무릎을 걸어 상처를 살펴보았다. 통증도 많이 가시고 딱지도 두껍게 앉았다. 걸을 때 살짝 아프긴 해도 이전 다 나온 것 같았다.

“어, 시원하다.”

목에 수건을 걸치고 욕실에서 나온 아버지는 십 년은 더 젊어 보였다. 아버지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지금 출동하자.”

옷을 갈아입은 아버지가 거울로 민국을 보았다.

“별써요? 어머니한테 연락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불쑥 찾아가는 게 더 반가워볼어야. 자, 가자!”

자동차는 어머니가 타고 갔기 때문에 버스를 타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버스정류소로 향하지 않고 아파트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왜 이쪽으로 가요?”

“걸어본 지도 꽤 오래 돼서, 발바닥이 근질근질 하잖아.”

“걸어가게요? 두 정거장이나 되는데?”

“까짓거, 두 정거장도 못 걷니?”

“좋아요. 하지만 힘들다, 덥다, 발 아프다 하기 없지요.”

“오케이.”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걷는 기분이 괜찮았다. 구름이 낮게 내려 앉아 조금 후덥지근한 느낌이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은 아파트 공사 현장이 가까이 있어서 별로 좋지 않았다. 덤프트럭과 굴삭기가 쉴 새 없이 드나들고, 흙먼지도 많이 일었다.

“옛날엔 이쪽으로 산책을 많이 다녔는데.”

아버지가 콘크리트 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신혼시절엔 어머니랑 일부러 시간을 내서 걷곤 했으께. 저기가 민주화 현장인 거 너도 알지?”

아버지가 도로 쪽으로 난 길을 가리켰다. 아버지는 이 길을 걸을 때마다 꼭 그 말을 했다.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그랬나? 아무튼 여기서부터 어머니 가게 있는 곳까지는 아주 성스러운 곳이다. 겁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그서 피 흘리고 쓰러졌지. 여그 동네는 아직도 후유증이 가시지 않았어. 집집마다 한두 명 씩 그때 일로 괴로워하고 있을 정도야.”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중얼거렸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때 일이 엇그제처럼 생생하니…”

엇그제 일처럼 생생하다는 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 끝에 항상 입버릇처럼 붙는 말이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때의 일이 머릿속에 짝 들어차 있는 사람 같았다.

전에도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버지는 삼촌 얘기를 꺼냈다. 삼촌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삼촌은 피투성이가 된 채 거리에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그때 삼촌의 나이는 열두 살, 지금 민국의 나이였다.

“삼촌은 민국이 너처럼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어. 자전거라고 해봤자 할아버지가 타던 커다란 짐바리 자전거였지.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큰 자전거는 할아버지의 자가용이었어. 할아버지가 싸전을 해서, 쌀가마니를 그 자전거에 싣고 다녔지. 그런데 정육이 고 조그만 녀석이 가끔 자기보다 큰 그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 거야. 폐달에 발이 닿지 않아 안장 밑에 발을 넣어 기우똥 기우똥 타는데, 그래도 얼마나 잘 타는지, 펄펄 날아다녔지. 그날도 그걸 타고 나간 거야.”

민국은 커다란 짐자전거 옆에 서 있는 삼촌의 사진을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민국이 네가 삼촌을 꼭 빼닮았어. 얼굴도 비슷하고 성격도, 하는 것도 다 똑같아. 말 안 듣는 것도 똑같다니까. 그날도 내 말을 안 듣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더니……”

독재타도! 독재타도!

거리에 시민들의 함성이 높았던 날이었다. 거리 곳곳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겨눈 채 서 있었다.

군인들이 애어른 할 것 없이 다치는 대로 죽인다는 흉흉한 소문이 무성했다. 광주로 들어오던 시내버스의 승객들이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무참하게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두려움과 분노에 떨던 시민들은 시침으로 거리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신문에서는 그런 시민들을 빨갱이이며 폭도라고 몰아세우고 있었다. 빨갱이들은 모두 처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시민들과 군인들의 대치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버지도 친구들과 함께 그 속에 있었다.

독재타도! 민주회복!

시민들의 구호가 점점 높아가자 군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시민들을 에워싸듯 대열을 이루는가 싶더니 곧바로 공격대열을 이루었다. 맨 앞 대열은 곤봉을 치켜세웠고, 뒤에선 사격자세를 취했다. 금방이라도 시민들을 향해 달려들 태세였다.

주먹을 불끈 쥐고 독재타도를 외치던 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민과 군인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오고 있는 자전거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안장 밑에 다리를 넣고 기우똥기우똥 폐달을 밟으며 달려오는 것은 분명 삼촌이었다.

“정육아!”

“형!”

아버지와 삼촌이 거의 동시에 소리쳤다.

그러나 그 소리는 군인들의 고향소리에 묻혀버렸다.

“와아아아!!”

군인들이 별안간 괴성을 지르며 군중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최루탄이 터지고, 곤봉 휘두르는 소리와 비명소리에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군중들은 눈과 코를 틀어막은 채 사방으로 흩어졌다.

삼촌은 최루탄 연기 속에서 요리조리 사람들을 피하며 달려왔다. 아버지가 무리에서 뛰쳐나와 삼촌에게 달려갔다. 그때였다. 군인들 몇 명이 달아나는 시민들을 향해 발포를 하기 시작했다.

타타타탕!!

귀청을 찢는 총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귀를 틀어막고 엎드렸다. 총소리는 계속해서 들렸다. 시민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곤봉으로 내리치는 소리, 비명소리, 군홧발소리…….

“잠시 후, 내가 삼촌을 발견했을 때 삼촌은 의식이 거의 없었지. 자전거에 깔린 채 짓밟혔는지 발은 피투성이였고……. 그 옆엔 바퀴 빠진 자전거가 쓰러져 있고, 그 옆엔 신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더구나. 삼촌을 보고 대열에서 빠져나오는 바람에 나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친구들과 삼촌은……”

민국은 몸서리가 쳐졌다.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 삼촌을 볼 때마다 민국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처럼 가슴이 서늘해왔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삼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다. 삼촌이 민국을 투명인간 보듯이 해도, 기분 나쁘지 않은 것도 그래서였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는 왜 경찰이 되었을까?

민국은 듣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렇게 염원하던 민주주의 나라의 경찰이 되어 상처받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길옆의 교회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왔다. 교회가 끝나는 시간인 모양이었다.

큰길 쪽으로 접어들어 한 정거장 정도만 걸으면 어머니 가게였다. 교회 앞을 지나칠 때였다.

옆구리에 성경책을 낀 양복차림의 중년의 남자가 민국을 툭 치며 아는체를 했다.

“누구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이런 디서 만났께 겁나 반갑구마이.”

남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펄떡 생각이 났다.

우락부락한 얼굴, 시꺼먼 피부… 민국은 이크 싶었다. 바로 광주철공소 주인이었던 것이다.

“아, 안녕하세요?”

민국이 꾸벅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얼른 지나치려고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아버지가 팔을 잡았다.

“누구시니?”

“아부지 되시는갑다. 아따 반갑소잉. 나는 시방 찌그 아래서 철공소를 하는 사램인디, 이 아그가 엇그저께 자전거를 맡겨볼지 않았소.”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철공소에서 보았을 때와는 영 판판이었다.

“우리 애가 자전거를 맡겼다고요? 어쩐지 그래서 아까 자전거 타자고 했더니, 핑계를 대불었구만.”

“자전거는 풀씨게 고쳐놔는디 여태까정 안 찾아강께 궁금허기도 허고. 자전거를 찾으러 올 때 아부지나 어무니랑 함께 오너러 했더니, 그래서 여적 안 오는갑다 했지라. 아따 시방 날씨 허벌라게 덤네요잉.”

남자는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닦았다.

“왜 어른과 함께 오라고 하셨나요?”

아버지의 직업의식이 또 나오기 시작했다. 민국은 진땀이 날 것 같았다. 일이 이런 식으로 꼬일 수도 있구나.

“아따 별일 아니어라오. 그런데 나가 시방 교회버스를 타야 되서 이만 가봐야 쓰겼소. 나중에 또 봅시다. 그러고 아그야, 니도 교회 좀 땡기거라이? 교회 땡겨야 죽어서 천국도 가고 그러께. 나 먼저 가께이?”

철공소 주인은 말을 얼버무리고, 막 출발 하려는 교회버스에 올랐다.

“이상하네? 어른하고 함께 오너러 했더니, 그래서 여태 안 오는가 보다 했다?……”

아버지는 버스 풍무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넌 왜 아까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았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국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속은 영 개운치 않았다.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얘기를 안 하자니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 같은데……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네.”

민국은 조용하게 대답했다.

“숨기는 건 아니고 말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쁜 일 아니니까 걱정 안하셔도 돼요.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버지는 민국의 모자를 살짝 돌려놓고 큰 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래, 너 만할 땐 다 비밀이 있는 법이지. 아빤 네가 뭘 하든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조금 짓궂은 얼굴로 물었다.

“저 큰길에 있는 전봇대까지 누가 빨리 뛰나 시합할까?”

“제가 이기면 앞으로 더 이상 아무 것도 묻지 않기로, 어때요?”

“좋아. 그럼 아빠가 이기면 묻지 않아도 얘기해 주기다.”

“좋아요. 준비이, 땅!”

아버지는 쓴살같이 뛰어나갔다. 민국 역시 뒤질세라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아버지가 민국보다 훨씬 앞서 나갔다. 늘 지쳐 보이는 아버지가 어디서 저런 힘이 났을까? 민국은 이를 악물고 뛰었다. 무릎이 아팠다. 그렇지만 자전거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빨리 뛰어야 한다. 킁전으로 확확 바람이 스쳤다. 아버지와 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것 같았다. 좀 더 빨리, 조금만 더, 조금만…… 민국은 자신에게 확확 채찍을 가했다. 힘에 부쳐서일까?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아버지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았다. 헉헉, 헉헉……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목적지인 전봇대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다.

“야아아아!”

민국이 따라잡자 아버지가 괴성을 질렀다. 하지만 민국이 한 발짝 앞서고 있었다. 아버지가 손을 뻗었다. 그러나 민국이 먼저 전봇대를 짚은 뒤였다.

“졌다!”

아버지는 두 팔로 무릎을 짚고 헉헉,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고, 아무래도 내가 늙어붙었나 부다.”

민국도 입에서 뜨거운 바람이 확확 새어나왔다.

“아, 숨차다. 우리 민국이 정말 많이 컸구나. 아빠도 이기고.”

“이젠 아무 것도 물어보지 말아야 해요.”

“알았다. 걱정 마라. 내가 이겼어도 물어보지 않을 생각이었으니까.”

아버지가 민국의 모자를 바로 씌워주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었다. 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는 동안 민국은 천천히 걸었다. 조금 이상했다. 아버지는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는데…… 왜 갑자기 속도를 늦췄을까? 아버지가 정말 늙으신 걸까?

“예, 예, 알았습니다. 곧 출동하도록 하지요.”

아버지가 탁 휴대폰 뚜껑을 닫았다.

“아빤 또 나가야겠다. 일이 생긴 모양이야.”

“지금요?”

“미안하구나. 모처럼 어머니 가게에서 앞치마 두르고 일 좀 하렸더니. 에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아버지는 큰 길에서 달려오는 택시를 향해 손을 뻗었다.

“민국아, 아빤 지구의 평화를 위해 이만 또 출동이다, 안녕!”

아버지가 택시를 타며 눈을 찡긋해 보였다.

멀리 사라지는 택시를 바라보며 민국은 혼자 멍하니 서 있었다.

컨테이너 습격 사건

“뭐라고? 컨테이너를 습격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 도대체 왜 이래?”

민국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수화기 저쪽에서 석우와 경식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경식이랑 한 번 가 봤는데, 거기 쌓여있는 자전거를 보니까 우리도 화가 치밀더라. 이진 민국 너 문제만은 아니야. 내 문제일 수도 있어. 옛날에 내 동생 세발자전거 잃어버린 것 너도 알지? 그것도 분명 그 영감탱이 짓이 분명해.”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거기 쌓여 있는 자전거들이 증거가 아니고 뭐야? 그리고 너도 역시 그 영감탱을 의심하고 있는 게 틀림없잖아.”

“그래, 나도 의심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돼. 그리고 그 노인이 범인이라고 해도 우리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야. 우리나라 법엔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직접 심판을 할 수는 없게 돼 있어.”

“판사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아무튼 우리 아파트 아이들 불러 놓고 자전거 잃어버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 봐야겠어. 민국 너는 너대로 해. 우리는 우리대로 그 영감탱 뒤를 쫓아내야지.”

민국은 더 이상 말하기 싫었다. 일이 이렇게 꼬이다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애초에 근희를 끌어들인 것부터 잘못이었다. 하지만 석우와 경식이의 행동은 막아야 했다.

“이석우. 지금 나 좀 잠깐 보자.”

“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경식이고, 근희도 같이.”

“지금은 시간을 내기가 좀 그렇고, 아이들하고 얘기해보고 다시 전화할게.”

민국은 생각에 잠겼다.

컨테이너를 습격했다는 것이 무얼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물건들을 부수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럴 애들이 아닌데 하면서도, 차곡차곡 쌓아놓은 종이류와 철근 파우를 마구 헤치며 키득대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랬다면 지금쯤 리어카노인은 바깥 경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노인이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민국은 모자를 눌러 쓰고 밖으로 나왔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원주민 마을로 걸어갔다. 마음이 급해졌다. 노인이 아직 모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가서 원상복구를 할 생각이었다. 노인이 발견하기 전에 정리를 해 놓을 생각이었다.

넓고 허름한 주택들을 지나고 편의점 앞을 지나칠 때였다. 민국은 문득 발을 멈췄다. 그리고 얼른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다.

광주철공소 앞에 리어카가 하나 서 있었다. 어두컴컴한 가게 안에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철공소주인도 보였다. 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의자에 마주 앉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둘은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아 보였다. 철공소주인은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짹짹 소리를 질러댔다. 싸우는 것 같지는 않았고, 아마 노인의 귀가 어두운 모양이었다.

이건 굉장한 정보였다. 리어카노인과 철공소주인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니. 왜 여태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어쩌면 둘은 공범일 수도 있었다. 한사람은 자전거를 훔쳐오고 또 한사람은 수리해서 팔고.

거리가 멀어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지만, 표정은 심각해 보였다. 민국은 철공소 반대편으로 돌아 노인의 컨테이너로 뛰어갔다.

노인의 집 마당은 그대로였다. 철근과 종이류는 차곡차곡 쌓여있고, 컨테이너도 이상이 없어 보였다. 민국은 열려있는 창문으로 안을 힐끔 들여다보았다. 안에도 별 이상이 없어 보였다. 그러면 그렇지. 그 애들은 그럴 아이들이 아니야.

그런데 왜 그런 전화를 했던 것일까?

그거야 간단했다. 근희에게만 알려준 게 샘이 났던 것이다. 순진한 짜식들. 민국은 괜히 웃음이 났다.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고 밖으로 나오려 할 때였다. 민국은 컨테이너 출입문 옆에 작은 종잇조각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A4 용지를 발기발기 찢어놓은 것 같았다. 이게 뭐지? 민국은 한 장을 집어 들었다.

<정의>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또 다른 종이엔 <도둑>이라고 쓰여 있었다. 민국은 종이들을 다 모아 보았다. 그리고는 퍼즐 맞추듯이 조각을 맞춰보았다. 중간쯤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

<파렴치한 도둑 영감탱이. 당신은 이제부터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민국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석우의 글씨가 분명했다. 석우는 이 종이를 출입문에 붙여 놔던 게 틀림없었다. 그걸 발견한 노인이 찢어서 버린 거겠지.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보기 위해 광주철공소로 간 것이다.

이럴 수는 없었다. 이건 나쁜 것이었다. 노인이 자전거를 훔쳤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다.

민국은 종이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찌면 잘 된 일일지도 몰랐다. 노인이 이걸 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지도 모르니까. 민국은 종잇조각을 그대로 흩어놓고 밖으로 나왔다.

가는 길에 철공소를 다시 몇 볼 생각이었다.

노인은 거기 없었다. 철공소 주인 혼자 앉아 뭔가를 수리하고 있었다. 지난번 맡긴 자전거를 찾아갈까? 가서 노인에게 물어 볼까? 아마 묻지 않아도 철공소 주인이 먼저 노인 이야기를 꺼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나를 의심하고 있을지 몰라.’

민국은 암담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어떻게 찾아오지? 아버지 생각이 났다. 하지만 아직은 아버지까지 끌어들이는 일이었다. 당분간 사태를 지켜보자.

돌아가는 길에 민국은 석우네 집을 들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자 석우의 어머니가 나왔다.

“어머 민국아. 너희들 무슨 일 있니?”

석우의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국을 바라보았다.

“석우는 어디 나갔나요?”

“민국 너 만난다고 나갔는데? 너희들 싸웠구나?”

“싸우기는요. 길이 엇갈린 모양이에요. 몇 시쯤 나갔어요?”

“한 십오 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체과점에서 빙수를 먹기로 했다면서?”

“아 참, 그랬지. 내가 요새 건망증이 좀 있어서요. 안녕히 계세요.”

뭔가 이상한 듯 고개를 갸웃하는 석우 어머니를 뒤로하고 민국은 계단을 타다닥 뛰어 내려왔다.

아파트 입구에 있는 체과점을 향해 뛰어갔다. 창밖에서 슬쩍 보니 석우와 경식의 모습이 보였다. 근희도 있었다. 민국은 주저하지 않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근희가 먼저 알아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한민국. 여기 웬 일?”

“나도 팔빙수 좀 먹으러 왔다.”

“우리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왔어?”

석우는 당황하는 목소리였다.

“왜? 아까는 시간이 없다고 하더니?”

민국이 자리에 앉으며 말하자, 석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는 정말 어머니 때문에 나오기 힘들었어. 너희들 핑계 대고 겨우 빠져 나온 거야.”

석우의 말에 근희가 발끈했다.

“너, 이석우. 아깐 민국이 시간이 없어서 못나온다고 안 그랬니?”

“아, 그건 그냥... 아 참, 민국 너도 팔빙수 먹을 거지? 여기 팔빙수 하나 더 주세요!”

석우는 얼른 화제를 돌리려 했다.

아까 민국에게는 시간이 없어서 만날 수 없다고 해 놓고, 경식이나 근희에게는 민국이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온다고 말한 모양이었다.

“너 왜 우리들한테 거짓말을 하니?”

근희가 쏘아 붙였다.

“됐어. 아깐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했어.”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아 민국이 그렇게 말했지만 근희는 믿지 않았다.

“너 저쪽에선 저 말하고, 이쪽에선 이 말하고 그러는 애구나?”

“됐다고 했잖아.”

잠자코 있던 경식이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나저나, 넌 왜 우리한테 자전거 잃어버린 얘기를 안 했니? 세 명 중에 한 명에게만 살짝 알려주면, 남은 두 명은 왕따라는 걸 너도 알잖아.”

“미안하다. 그렇게 됐다.”

“자전거는 아직 못 찾았지?”

“그래. 옛날에 잃어버린 것은 찾았는데, 새 것은 아직 못 찾았어. 그런데 너희들 왜 그런 짓을 했니?”

“그런 짓이라니?”

석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노인을 헐박했냐고.”

“헐박이 아니라 경고야.”

경식이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건 나쁜 짓이야.”

“그런 영감탱은 그래도 싸.”

석우가 대답했다.

“아무튼 이번 일은 잘 한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 일을 더 확대 시키지 말아 줘. 이건 내 일이야.”

“네 일뿐 아니라, 자전거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일이야.”

석우는 여전히 발끈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많은 사람들 일이라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나설 수는 없잖아.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해.”

“왜 너 혼자 하려고 하는데?”

경식이가 물었다.

“아직 확실한 게 없기 때문이야. 여러 사람이 나섰다가는 그 노인이 눈치를 챌 것이고, 그러면 영영 증거를 못 잡을 수가 있어.”

“그런데 왜 근희에게는 알려 주었는데?”

석우가 빈정거리듯 말했다.

“그건 근희가 다니는 교회에 알아 볼 것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맞아. 그 얘기는 내가 너희들한테 해 줬잖아.”

근희도 말했다.

“아무튼 나는 오늘 너희들이 한 짓을 이해할 수 없어.”

“우리들 짓이 아니라 석우 짓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해.”

근희의 말에 석우는 자존심이 상하는지 입을 꼭 다물었다.

민국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팔빙수를 떠먹었다. 석우는 기분이 망가진 것이 틀림없었다. 그릇에 팔빙수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수저를 놓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걸 보면. 아니나 다를까. 석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난 이만 간다.”

“왜 갑자기?”

민국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너 같으면 이런 기분에 같이 앉아 있고 싶겠냐?”

석우는 통명스럽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경식과 근희가 ‘재 왜 저래?’ 하는 듯이 양 어깨를 으쓱 세웠다. 유리창 밖을 바라보던 민국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근희는 알만하다는 듯이 이맛살을 찡그렸다.

삼촌은 관계없음

삼촌이 돌아온 것은 점심이 지나서였다. 삼촌은 언제나 그렇듯이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수염도 덩수룩하고 옷도 피뢰피했다. 밖에만 나갔다 오면 이렇게 노숙자처럼 변하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그게 좋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촌은 밖에 잘 나가지 못했다. 그런 삼촌을 위해 아버지가 전동스쿠터를 사준 것이다. 스위치만 누르면 앞으로 가는 것이라 삼촌도 충분히 탈 수 있었다. 어려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서 스쿠터도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의 생각은 맞았다. 전동스쿠터는 삼촌의 날개가 되었다. 스쿠터를 갖고 나서부터 밖으로 쏘다니는 것이 취미가 되었다. 잠을 자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별떡 일어나 스쿠터를 타러 나갔다.

그뿐이 아니었다. 스쿠터가 생기고 나서 삼촌의 상태는 급속히 좋아지기 시작했다. 말도 잘 했고, 소리 내어 웃기도 했다. 게다가 방에서 혼자 목발을 끼우고 걷는 연습을 하는 것을 민국은 여러 번 보았다. 삼촌이 무안해 할까봐 모른 척하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민국이 묻자 삼촌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저기.”

라고 대답했다.

“약은 먹었어?”

“먹었다.”

“배고파? 밥 차려줄까?”

“밥 안 먹었다. 배고파 죽겠다.”

삼촌은 손으로 배를 쥐어짜는 시늉을 했다.

민국은 찌개를 데워 밥을 차려주었다.

삼촌은 허기가 졌는지 꾸역꾸역 밥을 퍼 먹었다. 오늘따라 삼촌의 어깨가 무척 초라해 보였다. 삼촌이 어렸을 때 민국과 똑같았다던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민국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을 믿으면 민국도 커서 삼촌과 똑같아질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였다.

“물.”

꾸역꾸역 밥을 먹던 삼촌이 물을 찾았다.

민국은 물을 떠다 주었다.

삼촌이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민국은 삼촌이 자전거 애기조차 싫어하지만 그래도 물어볼 것은 물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더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았다.

“삼촌, 혹시 내 자전거 못 봤어? 새로 산 자전거 말야.”

대답은 ‘역시나’ 였다.

“몰라.”

삼촌은 쳐다보지도 않고 짧게 대답했다.

민국은 방으로 들어와 사건노트를 펼쳤다.

<자전거가 사라진 날 삼촌이 사라졌음. 그러나 삼촌의 스쿠터도 함께 사라졌음. 세 개가 동시에 사라질 확률은 거의 제로임. 그래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

그 글귀 밑에 이렇게 썼다.

<확인 완료>

삼촌은 적어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거짓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혹시 몰라 민국은 베란다에 나가 자전거보관소를 내려다보았다. 삼촌이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보관소에 세워뒀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나하나 유심히 보았지만 민국의 자전거는 보이지 않았다. 삼촌이 타고 온 스쿠터는 자전거 보관소 옆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었다.

삼촌에 관한 메모 밑에 <삼촌은 관계없음> 이라고 썼다.

민국은 휴대폰을 꺼내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삼촌오셨어.

어머니에게 금방 답장이 왔다.

알았다아빠랑일찍갈게.

저녁에 아버지는 빵과 치킨을 사들고 왔다. 삼촌이 왔다는 말에 일부러 시간을 냈다고 했다. 어머니도 곧바로 달려왔다. 어머니 손에도 빵이 들려 있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삼촌은 아까 밥을 먹고도 빵과 치킨을 허겁지겁 먹었다.

“고모한테 갔다가 만화책 빌려보고 공원에 하루 종일 앉아 있고, 5.18 행사 준비 하는 거 보러 다니고, 다시 고모 집에 가고 다시 텔레비전 보고. 맞지?”

아버지는 사흘 동안 삼촌이 어떻게 지냈는지 훤히 알고 있었다. 민국은 그게 바로 아버지의 힘이라고 생각했다. 형사라면 그 정도쯤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어쩌면 민국이 하루 종일 뭘 하고 지내는지도 훤히 알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민국은 짙었다.

“이번 5.18추모행사 준비하는 데도 갔었어요?”

어머니가 물었다.

“5.18 전야제 행사와 석가탄신일이 맞물려 금남로 일대에 등을 걸어놓았거든. 그 모습이 장관이야. 민국이 고모 말로는 정옥이가 하루 종일 거기서 놀았대. 요새는 추모제 때 문화 예술 축제도 함께 열리는 추세라 분위기가 화려하거든. 종일 거기서 놀아도 심심하진 않았을 거야. 맞지?”

아버지 말에 삼촌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정옥아. 내 말을 잘 들어. 이제 너도 장가를 가야되지 않겠니.”

아버지가 본론을 꺼냈다.

“형이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더니, 참한 여자를 소개해 주더라. 형이 먼저 만나봤는데 정말 곱고 착한 사람 같아.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자고 약속을 해 봤어. 요새 사건이 하나 있어서 내가 다음 주까지 엄청 바쁘거든. 그래서 형수하고만 둘이 나가야 될 거야.”

“저이도 결혼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민국이 이렇게 어리잖아요. 빨리 결혼해서 아이도 가져야……”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삼촌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은 채 빵만 입에 옥여넣고 있었다.

민국은 방으로 들어왔다. 모두들 기분이 좋아보였지만 민국은 아니었다. 오늘따라 삼촌과 아버지가 불쌍해 보였다. 삼촌의 인생은 어쩌다가 이렇게 꼬인 것일까? 누가 삼촌을 열두 살 나이에 가둔 것일까? 아버지는 왜 저렇게, 가족 얼굴도 보기 힘들 만큼 바쁘게 사는 것일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몰려왔다. 민국은 그게 다 자전거 도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죄라는 것은 크던지 작던지 똑같이 나쁜 것이다. 이 땅에 또다시 피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자전거 도둑 역시 사라져야 마땅하다.>

민국은 천천히 노트를 채웠다.

오해

오늘은 토요일. 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 비라면 지긋지긋했다. 장마도 아니고, 봄에 웬 비가 이렇게 오는지. 비 때문에 봄을 다 망친 기분이었다.

민국은 학교에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화면엔 흑백사진이 떠 있었다. 노인의 컨테이너에서 찍어온 사진이었다. 나란히 앉아 표정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중년남자와 박박머리 중학생.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분명했다. 작은 눈이며 좁은 이마며 뾰족한 턱이며, 둘은 똑같이 닮아 있었다. 흑백사진이라 그런지 우습게도 북한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국은 사진을 확대하여 남자의 귀와 목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때는 흉터도 없이 말쑥한 모습이었다. 지금의 노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짙은 눈썹이나 조금 튀어나온 뺨쪽의 턱을 보면 그 노인이 분명했다.

민국은 뚫어지도록 사진을 바라보고 다음 사진을 클릭했다. 교회사진, 컨테이너사진, 그 다음엔 알 수 없는 숫자가 쓰여 있는 노트사진이 나타났다.

3020. 1005. 10350☆. 1710. 11550☆……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다.

요 며칠 기분이 계속 안 좋은 것도 바로 이 숫자 때문이었다. 비록 아마추어지만, 스스로 꽤 괜찮은 탐정이라고 자부해 왔는데, 이 숫자에 맥없이 무너져버리고 말다니.

그때 머릿속에 뭔가가 떠올랐다.

‘혹시……’

조금 엉뚱하긴 해도 민국은 간첩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간첩들의 소지품엔 이런 암호 같은 숫자들도 있다는 소리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민국은 얼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리고는 ‘간첩’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 결과가 주르륵 올라왔다. 너무 많아서 검색 범위를 좁혀야할 것 같았다.

<간첩 암호 숫자> 라고 입력했다. 결과를 훑어보던 중에 ‘난수표’ 라는 것이 눈에 띄었다.

<숫자를 무작위로 가려내어 암호·통신 등에 이용한다. 가로·세로 또는 비스듬히 어느 한 방향을 정해 차례로 숫자를 배열하고, 1~6 또는 0~9까지 숫자의 난수를 만들 때에는 물리적 방법인 주사위를 던져서 만들며……>

“맞았어! 바로 이거야!”

난수표에 관한 정보를 읽던 민국은 성우처럼 멋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뭔가 실마리를 잡은 기분이었다.

민국은 얼른 컴퓨터를 켰다. 의자를 주욱 밀고 일어서서 모자를 찾아 썼다. 디지털카메라도 가방에 넣고 신발장에서 비옷과 우산을 꺼냈다. 계단을 타다다닥 뛰어 내려갔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비옷을 입고 우산을 썼는데도 빗방울이 얼굴로 쳐들어왔다. 우산을 낮게 받쳐 들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중에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메시지였다.

어디얌?

근희였다.

외근중.

민국은 짧게 써서 보냈다.

편의점 앞을 지나며 광주철공소를 힐끔 쳐다보았다. 비 때문인지 철공소의 문은 닫혀 있었다. 문 앞에 주먹만 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비오는 날은 영업을 안 하는 모양이었다.

그노인영감탱자전거도독확실함석우가거기서옛날에잃어버린자전거발견했음석우펠펠뛰고있음.

민국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꺼버렸다.

석우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났다. 유치원 때부터 함께 지내고 있지만 마음이 늘 맞지 않았다. 하도 나서고 설치는 버릇 때문에 석우는 친구들과 자주 말다툼을 하곤 했다. 제발 이번 일에 석우가 끼어들지 않아야 할 텐데.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컨테이너가 있는 야산 쪽으로 향했다. 주위에 집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민국은 자신의 모습이 눈에 확 띌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산을 접은 것도 그래서였다.

노인에 대한 의문이 커갈수록 몸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쪽에 자꾸 얼쩡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게 없었다.

미행을 하거나 수색을 할 때는, 용의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띄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언젠가 아버지도 용의자를 미행한 적이 있다고 했다. 용의자가 아버지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어서 아버지는 알도 없는 빨테 안경을 쓰고 병거지 모자를 눌러 썼다고 했다. 그래서 감쪽같이 미행을 하여 범죄현장을 덮쳤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민국은 아버지가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만일 리어카노인이 민국의 얼굴을 알게 된다면, 민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자와 안경은 벗어 버리고, 입속엔 커다란 구슬도 물고 다닐 것이다. 연기자들이 퉁퉁 부은 얼굴을 연기하려면 입 속에 구슬 같은 것을 문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불이 불룩한 것만으로도 인상은 무척 달라진다고 했다. 아직 어려서 콧수염을 달 수 없으니, 그 방법도 괜찮은 것이었다. 얼굴 변장은 그렇게 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삼촌의 목발까지 빌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민국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나서 재빠르게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갔다. 리어카는 보이지 않았다. 컨테이너 앞에 세발자전거 하나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데도 노인은 일을 하러 나간 모양이었다.

민국은 울타리 바깥에 쭈그리고 앉아 안을 들여다보았다.

지난번 석우가 붙여놓은 쪽지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리어카가 드나드는 문도 활짝 열려 있었다. 민국은 울타리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오늘은 또 다른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볼 생각이었다.

민국은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컨테이너로 다가갔다.

오늘 따라 마음속에서

‘이건 좋은 일이 아니야.’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엄연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가져와!’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노인은 큰 범죄자일 수도 있었다.

자전거도둑이 아니라 간첩!

그렇다면 이걸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만일 그것에 연관된 새로운 단서라도 발견한다면 곧바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다.

컨테이너는 역시 반쯤 문이 열려 있었다. 고개를 밀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민국은 문 앞에 우산을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웬일인지 가슴이 쿵쿵쿵 뛰었다. 컨테이너에 쏟아지는 빗소리에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다. 비웃에서 물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다.

민국은 매서운 눈길로 구석구석 살폈다. 변한 것은 없어 보였다. 창문 아래에 찌그러진 양은 냄비와 라면봉지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바깥에 쌓인 고물은 차곡차곡 정리를 해도, 컨테이너 안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도 어찌면 연출인지 몰랐다. 이렇게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동정심을 유발시키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실내를 한 바퀴 둘러본 다음 침대로 쓰는 스티로폼을 슬쩍 들추어 보았다. 민국은 몸을 움츠렸다. 다리가 많은 벌레 한마리가 재빠르게 달아났다.

사방이 조용해지는 느낌에 창밖을 내다보았더니 비가 한층 잦아들고 있었다. 창문은 반쯤 닫혀 있었다. 지난번에 근회와 창문을 넘을 때 활짝 열었었는데, 그렇다면 노인은 민국이 창문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었다.

더듬더듬 담요 위를 만져 보았다. 담요 위쪽에 물이 담긴 생수병이 쓰러져 있었다. 위치상으로 보아 생수병을 베개로 쓰는 모양이었다. 생수병을 살짝 들어보았다. 더러운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손수건은 딱지크기로 접혀 있었다. 민국은 손수건을 펼쳐보았다.

낡은 흑백사진……. 지난번 근회가 찢은 그 사진이 나왔다. 사진은 스카치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노인의 어깨와 아들의 가슴께와, 귀통이에서 여러 번 조각이 나 있었다.

마치 그림퍼즐 같았다.

백번을 생각해도 이걸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 사진은 찢지 말았어야 했다. 노인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처벌할 수는 없다. 죄는 법으로만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법조항도 있지 않은가.

민국은 흔적이 남지 않게 손수건에 사진을 싸고 생수병 아래에 놓았다.

숫자들이 쓰여 있던 노트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을 느끼고, 다른 곳에 치운 것 같았다. 이것은 중요한 암시였다. 그 노트가 중요한 물건이라는 뜻이었다. 남에게 보여도 될 물건이라면 치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옷가지들이 영켜있는 구석으로 눈길을 돌릴 때 민국은 흠칫 놀랐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민국은 얼른 벽에 붙어 섰다. 그리고 바깥을 살짝 내다보았다.

누군가가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덩치가 큰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큰일이었다.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남자가 컨테이너의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었다.

민국은 얼른 반대편 창문 쪽으로 뛰었다. 민국은 창문을 밀었다. 그러나 창문은 잘 열리지 않았다. 킁, 킁, 조금씩 열렸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는 순간 민국은 창으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남자의 손이 민국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민국의 몸이 공중에 붕 뜨는 동시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담요 위에 쓰러진 민국은 고개를 들었다.

민국도 남자도 깜짝 놀랐다.

머리카락이며 옷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는 그 남자는 바로 광주철공소주인이었다. 철공소주인의 뒤에 역시 비를 흠뻑 맞은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은 허영게 백태가 낀 눈으로 민국을 내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흐미, 요런 도둑놈으 자석!”

철공소주인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입을 딱 벌렸다. 그리고는 젖은 손바닥을 내려칠 듯 번쩍 치켜 올렸다.

“내가 이럴 줄 알아볼었지잉. 니놈이 요기 얼쩡거릴 때부터 쪼개 수상하다 했었당께. 으메, 요고를 어찌혀야 쓰까잉. 요런디서 뭘 돌려먹을 게 있다고, 눈구녕 있으면 잘 보더라고잉! 요기서 뭘 가져갈 꺼덕지가 있나 보더랑께!”

철공소주인은 발로 찰 기세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야! 생기기는 멀쩡혀 갖고, 쥐새끼 드나들 듯 허벌나게 다님시로 자전거 돌려불고 사진도 찢어불고 별시런 짓거리해불어싼 거 모를 중 아냐? 니놈 잡을라고 겁나게 비가 퍼부스는 디서 쥘일 비 맞고 숨어있었던 거인디. 너 같은 놈은 뽕빠지게 혼구녕을 나불어야……”

남자가 다시 손바닥을 번쩍 치켜 들 때였다.

빠요, 빠요, 빠요…….

바깥에서 요란한 경찰차 소리가 났다. 경찰차는 빠르게 다가와 컨테이너 앞에 멈추어 섰다.

민국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철공소남자와 노인이 미리 신고를 하고 온 모양이었다.

우의를 입은 경찰 두 명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민국은 눈을 감았다. 옆친 데 덮친 격이었다. 이렇게 잡혀가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할 게 뻔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였다.

“실례합니다.”

경찰이 컨테이너 안을 힐끔 들여다보며 말했다.

“뭣이오, 왜 이런데요.”

철공소주인이 눈을 둥그렇게 떴다.

그때였다. 민국은 가슴에 불이 확 켜지는 느낌이였다. 경찰 뒤에 석우와 경식이가 우산을 받쳐 들고 서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아이들이 부른 것이였다. 이런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경찰을 데리고 나타난 것일까? 석우가 처음으로 멋져 보이는 순간이였다.

“도와주세요!”

민국은 경찰을 향해 뛰어갔다.

경찰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꼈는지 민국을 얼른 감싸고, 철공소주인에게 말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신분증 좀 봅시다.”

철공소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였다.

“뭣이라. 신분증? 으메, 기가 맥혀 말이 안 나와뿌네 참말로. 여보드라고, 순사양반덜. 개코두 몰르면서 뒷북만

치대지 말고 나가 하는 말 들어보더라우. 시방 나는 찌그 아래 철공소서 일하는 사램인디 말이지.”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이 자전거를 도난당했다고 신고를 했지요? 그리고 이 애는 또 뭐니까? 애를 여기 가두고 뭘 하는 거지요?”

“뭐라고라. 자전거 도난? 나 완전히 돌아부리겠소. 시방 나가 뭘시 으쨌다고 이룬디야? 완전히 생사람을 잡아부리요. 참말로.”

철공소주인은 억울해서 가슴을 쿵쿵 치기까지 했다.

“요새 자전거 도난사고가 기승을 부리는데, 협조 좀 해 주세요.”

“여보쇼! 나가 시방 여그서 요런 싸가지 읍는 아그헌티 시상 살아가려면 싸수부터 파랏파랏 혀야헌다 하고 좋은 말로 타이르고 있었소. 그랑께 간단히 설명해볼면, 혼자 사는 불쌍한 이 할압씨가 엇그저께 나헌티 와설랑은, 어든 도둑놈이 남 집에 들어와서 하나밖에 읍는 아들 사진을 걸레쫓가리로 만들어붙었다고 가슴을 통게통게 하지않겼소.”

“흠.”

경찰이 철공소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할압씨가 말을 못하는 병어리라우. 5.18 때 가족들 다 잃고 반병신이 다 되어붙었지라. 오메 징헌거. 하나밖에 읍는 아들도 그때 잃어 버렸는디, 아직까장 돌아올 거라고 저리고 지들리고 있는 거라우.”

“그래서요.”

“어쨌든시간에 옛날이나 시방이나 우리나라는 누구던지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민주거시기국가로 알고 있는디, 고 도둑놈은 고걸 잘 모르는 아그였다 이 말이지라.”

“그런데요?”

“허여튼시간에 고 도둑놈이 워쁜 놈인가 하든 바로 요놈이라. 요런 나쁜 놈을 기양 냅두어야 쓰겠소. 아니면 요로코롬 비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드려붙고, 다리몽땡이 똑각 분질러부러야 쓰겠소? 까꾸로 한번 생각해보쇼, 들.”

경찰은 어리둥절하며 민국에게 물었다.

“정말이니?”

민국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민국은 답답했다.

그때 경식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전거가 분명 여기서 나왔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간첩들이 쓰는 난수표도 가지고 있어요!”

민국도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그 순간 경찰도 철공소주인도, 석우와 경식도 눈을 둥그렇게 뜨고 민국을 쳐다보았다.

“난수표? 그게 무슨 소리냐?”

경찰이 민국에게 물었다.

“이 컨테이너 안에서 숫자가 잔뜩 써 있는 노트를 봤어요. 난수표가 분명했어요.”

“한 번 좀 봅시다.”

경찰 한 명이 철공소주인과 노인을 컨테이너 안으로 데려갔다.

또 다른 경찰은 석우와 경식을 민국 앞으로 불렀다. 경식이 민국에게 우산을 씌워 주었다.

“도대체 뭐가 뭘지 모르겠다. 차근차근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봐라.”

경찰이 물었다.

민국은 자전거를 잃어버리고부터 이 컨테이너를 발견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꺼내어 경찰에게 보여 주었다.

“이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트사진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난수표고요.”

경찰은 카메라 뷰파인더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3020, 1005, 10350, 1710…… 이게 뭐지?”

경찰은 고개를 갸웃거리고는

“잠시만 기다려라.”

하며 카메라를 가지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경찰은 다시 나왔다. 경찰의 얼굴에 웃음기가 살짝 배어 있었다.

“그래, 난수표하고도 비슷하긴 하지만 네가 좀 잘 못 짚은 것 같구나.”

“그럼 뭐예요? 그 숫자는? 그리고 별도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 노트는 금전출납부나 마찬가지로야. 하루하루 번 돈을 적어 놓은 거야.”

“네?”

민국은 입이 딱 벌어졌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그런 쉬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게다가 노인은 하루에 삼천이십 원, 천오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한단 말인가. 오월 단위 때문에, 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민국은 부끄러웠다.

“별표는 수입이 좋았던 날 빵을 사먹었다는 표시라는구나.”

민국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뭔가를 생각한 듯, 별안간 정색을 했다.

“아무튼 간에 너희들! 남의 컨테이너에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라는 걸 모르니?”

“정말 죄송해요.”

경식이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애네 아빠도 경찰이신데, 조금 봐 주세요.”

석우가 민국을 쿡 찌르며 말했다.

“야! 이석우!”

민국이 눈을 부릅뜨고 석우를 노려보았다. 석우가 찡찡했다.

“아빠가 경찰이시라고? 어디에서 근무하시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민국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할 수가 없었다.

“한자 정자 석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식이가 아는체를 하며 자신 있는 소리로 말했다.

“한정석 경감님?”

경찰이 민국을 힐끔 쳐다보더니

“왜 경찰가족이 이런 짓을 했지? 아무래도 너희들은 경찰서에 데려가 따끔한 맛을 봐야 되겠다.”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석우가 두 손을 짹짹 빌며 말했다.

그때 철공소남자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경찰이 다가왔다.

“양쪽 다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하지만 너희들은 처벌을 받아야 할 거다. 형법 319조엔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영?”

경찰이 으름장을 놓자 민국과 석우와 경식은 몸을 바짝 움츠렸다.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

경식이기도 울먹이며 말했다.

그때 철공소주인이 다가왔다.

“그렇게 느그들이 시방 용서를 해 달라는 것이냐? 요로코롬 징허게 사는 사람을 심들게해볼고 용서를 해달라는 것이냐? 한 장밖에 읊는 가족사진을 걸레쫓가리로 맹글어볼고 용서를 해달라고야? 그런 말 허면서 댘이 걸쩍지근허지 않냐?”

철공소주인의 말투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느그들 시방 나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이? 나쁜 짓도 껌감씩 껌감씩 하다보면 가슴에 철판이 깔려붙어서 낭중엔 암꽃도 무섭지 않아붙어야. 고런 놈은 낭중에 틀림없이 도둑놈이 되거나 사램 죽이는 살인범이 되서 결국에는 두 손 뽕뽕 묶여갓고 감빵에 들어가볼게 된다 이 말이여. 안 그렇소, 순사양반덜.”

“어떻게 하실래요? 처벌을 원하십니까?”

경찰이 노인에게 물었다.

“저 할압씨는 병어리라고 하지 않았소.”

철공소주인은 그러면서 노인에게 손짓 발짓을 해댔다. 흔히 보는 수화가 아니라 노인과 단 둘이 하는 수화인 것 같았다.

노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손짓으로 무슨 말을 했다.

“이 할압씨가 댐 착혀서 다 용서해볼겠다니께, 느그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이? 그라지만은 다음에 또 한 번 여그서 얼쩡거렀다가는 이 아자씨가 느그들 엇가락처럼 똑 분질러서 지나가는 개헌데 던져볼 텐께 알아서들 혀드라고. 그라고 이 할압씨가 느그들 자전거 필요하면 하나씩 주겠다니께 어렵게 생각 말고 야기들혀. 괜잖어. 야그들야, 말들 혀드라고.”

“저 자전거는 다 어디서 난 거지요?”

경찰이 물었다.

“궁계 말이시. 저것은 여쭙저쭙 돌아 댕기면서 합법적으루다 주서온 것이지라.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이 할압씨 절대루 나쁜 짓 안하는 사렘이라는 거, 시방 알 깨고 나온 빙아리두 아는 사실이라우. 복쫓가리라고는 징허게 읍는 이가 그라도 사람 사는 시상 만들겠다고 고장난 자전거, 선풍기, 테레비 뵘뵘뵘뵘 광내서 읍는 사람들헌티 나눠줘부린당게요. 그런 사렘이 상을 못 받을망정 요런 일을 당해부렀으니, 으메 징헌거. 느그들 진심으루 반성혀야 쓴다 이?”

철공소 남자가 아이들의 등을 한 대씩 때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국이 기어코 눈물을 푹푹 떨어뜨렸다.

삼촌의 날개

“민국! 안 일어날래? 오늘 너 왜 그러니? 어디 아파?”

이불을 뒤집어쓰고 침대에 누워있는 민국을 보고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다.

“알았어, 일어날게!”

민국이 이불 속에서 소리쳤다.

“애가 오늘 왜 그런다니. 밥 차려 봤으니까 얼른 일어나라, 엄만 나가야 돼.”

어머니가 방문을 닫았다.

민국은 이불을 머리 위로 더 끌어당겼다. 눈을 뜬 지 오래였지만 일어나기가 싫었다. 어제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창피하고 부끄러워 이불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건 민국의 역사상 가장 큰 수치였다. 탐정이니 수사니 이젠 말도 꺼내기 싫었다.

어머니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맡에서 휴대폰이 짹짹 울리다가 말았다. 손을 더듬어 휴대폰을 켜보니 문자메시지였다.

어제뵘났어?으양나도가싸야야는뵘ㅋㅋ

근희였다.

민국은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켜다. 근희만 아니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물쇠 입이라더니, 으이그!

민국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 퍼뜩 이불을 걷고 일어섰다. 어젯밤 잠들기 전 민국은 노트에 이렇게 썼다.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하듯, 자기가 써지른 일은 스스로 마무리를 할 것!>

그리고 자전거 도난 사건은 잠시 덮어두기로 했다. 그동안의 일들이 정리될 때까지 이 사건에서 신경을 끊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은 몇 가지 할 일이 있었다. 그래, 설거지를 하는 거야! 민국은 이불을 걷어냈다.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거실에 삼촌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민국을 보고도 삼촌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민국은 욕실로 가서 찬물을 콰콰 틀었다. 푸우푸 소리가 나도록 세수를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머리칼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거울 속의 얼굴이 웬지 아버지처럼 늙어 보였다. 아버지도 실수를 한 적이 있을까? 엉뚱한 사람을 용의자로 추적한 적이 있었을까? 만일 그랬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민국은 아버지를 잘 알았다. 적어도 아버지는 이런 일로 풀 죽는 사람이 아니었다. 단박에 까짓것! 하며 훌훌 털어버렸을 것이다.

“까짓것!”

민국은 거울에 대고 아버지 흉내를 냈다.

‘그래, 까짓것! 이딴 일 가지고 기가 꺾인다면 탐정 자격이 없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는 법이야.’

거짓말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민국은 한참동안 거울을 보며 서 있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나오는데 삼촌이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다.

“민국이 어디 가냐? 너 무를 괜찮냐?”

놀라운 일이었다. 삼촌이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드문 일이었다. 게다가 민국의 이름까지 부르다니! 여태껏 삼촌은 민국의 이름조차 모르는 줄 알았는데.

“와, 삼촌!!”

민국은 말을 잊지 못하고 삼촌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삼촌이 내 이름도, 내 이름을 어떻게…… 무들은 다 낫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잠깐 밖에 불일이 있긴 한데, 왜요,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있어요? 과자 사올까요?”

민국은 반가움에 말이 더듬어졌다.

그러나 삼촌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하고만 있었다.

“뭐 부탁할 거 있어요? 아니면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뭐 줌 사다 줄까요?”

그래도 묵묵부답.

‘아까 텔레비전에서 하는 소리를 잘못 들었나?’

민국은 고개를 가웃대며 방으로 들어갔다. 삼촌은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었다. 한 집에 살면서도 화장실은 언제 가고 밥은 언제 먹는지도 모르는 유령 같은 존재였었는데. 맞았다. 삼촌은 민국이네 집에서 유령처럼 살았다. 말도 없고 웃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아무 때나 나가고. 그런 삼촌이 요즘 슬슬 변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 때문일까? 아니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니면 스쿠터 때문에? 그 모든 것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어쩌면 삼촌은 민국의 나이를 의식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민국이 삼촌의 어린 시절 모습과 닮았다고 하지 않은가. 열두 살 민국을 보며 삼촌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퍼뜩 정신이 들었고, 옛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각오를 한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민국은 국에다 대충 밥을 말아 먹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를 사건노트 사이에 끼우고 모자를 눌러썼다.

1, 빵집에 들러 것, 2, 가장 맛있는 빵과 음료수를 살 것, 3, 사진관에 들러 것…… 속으로 오늘 스케줄을 외치며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비가 온 뒤라 바깥은 눈이 부셨다.

현관을 나와 경비실을 지나면서 버릇대로 자전거보관소를 훑어보았다. 맨 오른쪽에 삼촌의 전동 스쿠터가 서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옆쪽에 서 있는 자전거를 하나하나 훑어보던 민국은 우뚝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가슴이 확 불이 켜졌다. 눈이 의심스러웠다. 일렬로 서 있는 자전거들 틈에 민국의 자전거가 있었다. 색깔이며 모양이며 분명 민국의 자전거였다.

민국은 얼른 뛰어갔다. 안장 밑에 손을 넣어 더듬어보았다. 있었다. 손끝에 테이프가 만져졌다. 고개를 페달 가까이 숙여 안장 밑을 살펴보았다.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테이프를 떼어냈다. 초록색 테이프였다.

민국은 폐달에 묶여 있는 자물쇠를 내려다보았다. 강철케이블도 민국 것이었다. 사라졌던 자전거가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민국은 얼른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다.

“너 지금 뭐하는 거냐? 이 자전거가 네 거 맞냐?”

경비아저씨였다.

“제 자전거 맞는데요? 왜요?”

“나는 또 누구라고. 누가 자꾸 자전거를 수상하게 훑어본다 했지.”

경비아저씨는 민국을 기억하는 듯했다.

“그런데 이게 며칠 동안 없어졌었거든요. 이거 혹시 누가 도로 갖다 났는지 아세요?”

“이게 없어졌었다고? 옛그제는 저 나무 밑에 묶여 있던데, 혼자 그런데다 세워 두면 안 돼.”

“아니에요. 저는 항상 여기에 매어 놓는데요.”

그렇게 말하다 말고

“나무 밑이에요? 어디요? 어느 나무요? 그럼 거기서 여기에 누가 옮겨 났지요?”

라고 물었다.

“저 자작나무에 묶여 있더라. 네 자전거니까 네가 했지 누가 했겠냐? 앞으로는 다른 데다 묶어놓지 말고 항상 여기에 묶어놓아야 한다.”

경비아저씨는 민국 속을 뻘히 안다는 듯이 말하고 경비실로 들어갔다.

민국은 경비아저씨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잊고 있었다는 듯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다. 찰칵,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내가 뭘 착각했나? 그러나 아니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민국은 자신의 기억력을 믿었다. 그렇다면 분명 누군가가 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인가!

핸들에 손을 얹으려던 민국은 멈칫했다. 핸들을 만지면 안 된다. 핸들에 범인의 지문이 묻어 있을 것이다. 지문 감식을 할 필요가 있었다.

민국은 자전거에 자물쇠를 다시 채워두고 자작나무로 다가갔다. 자전거를 묶었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잔디에 무슨 발자국이라도 남아 있을 것 같아 유심히 살폈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혹시 경비아저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민국은 수첩에 <옛그제 자전거가 자작나무에 묶여 있었다고 함. 진실인: 경비아저씨. (경비아저씨를 알아볼 것)> 라고 썼다.

민국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고 단숨에 5층을 뛰어올라갔다. 책상서랍을 열어 필통처럼 생긴 상자를 꺼내고 다시 단숨에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혹시 그 짧은 시간에 자전거가 또 없어졌을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민국은 상자를 열었다. 작은 비닐봉지와 붓, 스카치테이프, 돋보기가 들어 있었다. 봉지 속엔 연필심을 갈아 만든 탄소가루와 녹말가루를 섞은 가루가 들어 있었다. 이런 일을 대비해 민국이 만들어 놓은 지문 감식가루였다.

민국은 가루를 핸들에 솔솔 뿌렸다. 붓으로 살살 문지르자 지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지문이 엉켜 있어 뚜렷한 지문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돋보기로 여기저기 살펴보았다. 안장과 몸체 부분의 스테인리스 위에도 지문이 묻어 있었다. 그중 가장 뚜렷한 지문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여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이 지문은 범인의 것이 분명했다. 그렇지만 이걸 누구의 지문과 대조를 한단 말인가. 용의자의 손가락을 스탬프로 찍어야 하는데, 그걸 협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니면 유력한 용의자의 물건에서 다시 한 번 지문 채취를 해야 한다.

이만하면 괜찮은 수확이었다. 용의자 추적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민국은 상자를 자전거 캐비닛에 넣었다.

“이야호!”

민국은 소리를 지르며 페달을 밟았다. 자전거는 속속 하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아파트 광장을 한 바퀴 돌다가 곧바로 정문을 빠져나갔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발바닥에 닿는 페달의 느낌, 꺾전으로 확확 스치는 바람소리…… 가슴이 뺑 뚫리는 것 같았다. 이런 기분은 자전거에 오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다.

“오레-오레오레오레 위아더 챔……”

입에서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매일 지나치는 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처음 와 본 길처럼 새로웠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전거도로는 한산했다. 민국은 있는 힘껏 속도를 내어 달렸다. 도로 옆으로 푸르게 올라온 개나리 잎사귀들이 무릎에 스쳤다. 봄엔 끝도 없이 노란 꽃으로 물들더니, 지금은 온통 초록투성이었다. 초록 잎사귀들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카퍼레이드를 벌일 때, 거리에서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 같았다.

내리막길에서는 페달 구르기를 멈추고 핸들에서 손을 놓았다. 지난번에 이곳에서 다리를 다쳤지만 그때 실수였다. 세발자전거부터 친다면 자전거 타기가 거의 십 년인데, 핸들도 놓지 못하면 우스웠다.

민국은 외줄 타기 하듯 몸으로 중심을 잡고 두 팔을 벌렸다. 자전거는 제 스스로 달렸다. 내리막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구름 위를 날아 하늘 끝까지 쉿쉿 달리고 있었다. 손끝으로 바람이 만져졌다.

오르막길을 오를 땀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다. 턱밑으로 숨이 차오르고 종아리도 빠근했다. 배도 고팠고 목도 말랐다. 그래도 쉬지 않고 달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민국은 제과점에 들러 빵과 음료수를 샀다. 맛있는 빵을 넉넉하게 샀다. 그리고 빵집 옆에 있는 사진관으로 향했다.

“엇그제 메일로 넣어드린 사진 찾으러 왔는데요.”

사진관 주인은 진열대 안쪽에서 사진을 한 장 꺼냈다.

“여기저기 보정을 하긴 했는데, 낡은 사진을 카메라로 찍은 것이라 화질이 별로 안 좋다. 게다가 흑백사진이라.”

“괜찮아요.”

사진 속엔 넥타이를 맨 중년의 남자와 검은 교복을 입은 박박머리 학생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사진 보정은 잘 되어 있었다. 실제 사진보다 더 선명하게 나온 것 같았다.

민국은 사진을 서류봉투에 넣고 그 봉투를 다시 빵 봉투에 넣었다.

야산 쪽으로 핸들을 틀었다. 비포장 길이어서 엉덩이가 아팠지만, 그것도 재미가 있었다.

컨테이너 앞에 리어카가 세워져 있었다. 리어카를 보자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다. 민국은 울타리 밖에 자전거를 세우고 천천히 컨테이너로 다가갔다. 문은 역시 반쯤 열려 있었다.

똑똑똑!

민국은 문을 두드렸다. 기다리는 동안 민국은 흠뻑, 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었다. 그동안의 일을 정식으로 사과드릴 생각이었다. 사과는 정식으로 해야 확실하게 용서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찝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문 안쪽으로 고개를 돌려볼까 생각이 들었지만 꼭 참았다. 허가 없이 남의 집을 들여다보는 것도 위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똑똑똑!

민국은 다시 한 번 노크 했다.

역시 대답이 없었다. 민국은 문 앞에 봉투를 놓았다. 그리고 노트 한 장을 북 뜯어 이렇게 썼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용서에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이를 두 번 접어 봉투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라도 하니 얼마간 빛을 갠 것 같았다.

광주철공소도 찾아갈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다. 이쪽에 얼쩡거렸다가는 엇가락처럼 분질러 개한테 던져줄 것이라는 말이 떠올라 웃음이 났다. 철공소주인은 새까만 러닝셔츠 바람으로 용접을 하고 있었다. 용접기에서 불이 번쩍번쩍 튀고 있었다. 철공소에 맡긴 자전거는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와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민국은 내리막길을 달려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숙제가 많아 하루종일 내근을 해야 할 것 같았다.

보관소에 자전거를 세우며, 계단에 세워둘까 생각했다. 가끔 계단 한쪽에 자전거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민국은 길이 막힌다고 혼자 갓길로 가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관소 중간쯤에 자리가 하나 있었다. 가운데는 조금 불편하긴 해도 가장자리 쪽보다 훨씬 안전한 자리였다. 그곳에 자전거를 세우고 자물쇠를 채웠다.

“이젠 어디 달아나지마, 알았지?”

민국은 자전거 안장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자물쇠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리고도 모자라 자꾸 돌아보며 계단을 뛰어올라왔다.

내일은 삼촌이 맞선을 보는 날이라 어머니가 일찍 들어왔다. 어머니는 삼촌의 옷을 죽 꺼내놓고 다리미로 다리고 있었다.

“어딜 그렇게 만날 쏘다니니? 이젠 기말고사도 준비할 때 아니니?”

“그래서 일찍 들어왔당께요. 삼촌은 어디 갔어요?”

“삼촌은 목욕 갔다.”

“삼촌 혼자서요?”

“아버지랑 갔어.”

“아버지 이번 주도 바쁘다고 하셨는데?”

“오늘 잠깐 시간을 냈다고 하는구나. 그렇지만 또 나갔다가 이따 밤늦게나 오실 거란다. 내일 같이 나갈 수 있다고 해서 다행이다.”

삼촌은 저녁이 다 되어 들어왔다. 면도도 하고 이발도 한 삼촌은 몰라보게 말쑥했다. 십년은 젊어 보였다. 이런 얼굴은 처음인 것 같았다. 기분도 좋아보였다. 왜 여태 이런 모습을 감추고 살았던 것일까?

민국은 힐끔힐끔 삼촌을 훑쳐보았다. 그리고 보니 삼촌 얼굴이 자기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국은 자기 전에 책상 앞에 앉았다. 사건노트를 펼쳤다.

잠시 덮어두려고 했었는데, 그럴 수 없었다. 사건이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무런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니, 이번 사건은 미궁으로 빠질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사라졌던 자전거가 다시 나타나다니, 말이 되지 않았다.

<아파트 경비원, 철공소주인, 리어카노인, 근위, 경식이, 석우>

민국은 노트에 이름을 적어 나갔다. 삼촌과 아버지, 어머니까지 적었다. 모두 의심스러운 구석이 조금씩 있었지만 선뜻 짚어내는 얼굴은 없었다. 그렇더라도 그들 물건을 하나씩 채취해서 지문을 떠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저런 생각에 골몰하던 민국은 <민국>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자기 이름을 적고 나니 기분이 묘했다.

잃어버린 사람이 죄라던 경비아저씨의 말이 떠올랐다. 그런 것 같았다. 잃어버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게 되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버지가 보는 책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나와 있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벌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국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테이프를 만지작거렸다. 새로 산 물건,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붙이는 초록색 테이프. 민국은 테이프를 잘라 가슴 위에 붙였다. 이마에도 붙였다. 거울을 보았다. 쿡쿡 웃음이 나왔다.

마음과 생각도 잘 단속할 것! 민국은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잠옷으로 갈아입기 전에 민국은 무릎을 보았다. 딱지가 앉고부터 상처는 급격히 나아가고 있었다. 거의 아프지도 않았다. 딱지가 떨어지면 흉터가 남기야 하겠지만, 시간이 가면 그것도 희미하게 변할 것이다. 시간의 효력은 엄청난 것이다.

톡.

스탠드의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 눈앞에 자전거가 보였다. 자전거 뒤에 리어카가 따라왔다. 낡은 신발을 신고 절뚝절뚝 리어카를 끌던 노인, 빨갛게 녹슨 컨테이너, 찢어진 흑백사진, 숫자가 빼곡히 적힌 노트도 보였다. 난수표……

생각은 끊임없이 맴돌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짜고 민국을 속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내가 뭘 착각하는 걸까? 자작나무에 자전거를 묶어 놓은 것은 혹시 내가 아닐까. 그리고도 기억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다. 모르겠어.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달가닥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민국은 시계를 보았다.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소리는 거실에서 나고 있었다. 문을 열고 거실을 빠끔 내다보았다. 삼촌이 거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문을 닫으려다가 말고, 이상한 생각에 다시 거실을 내다보았다.

삼촌은 의족을 하고 있었다. 의족에 양말까지 신고는 절뚝절뚝 걷고 있었다. 마치 걸음마 연습하는 어린이에 같았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 많이 안정되어 보였다.

잠시 왔다 갔다 하던 삼촌은 점퍼를 걸치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냈다. 옛날에 아버지가 사다준, 한 번도 신지 않아 새것과 다름없는 그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이 밤중에 또 어딜 가려는 것일까? 내일 맞선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민국은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툭.

불을 끄고 누웠는데 퍼뜩 무슨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민국은 불을 켜고 일어나 베란다로 달려갔다. 창밖은 가로등 불빛으로 환했다.

삼촌은 스쿠터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삼촌의 어깨를 흰히 비추고 있었다. 민국의 자전거는 자전거들 틈에 그대로 서 있었다. 새것이라 그런지 눈에 가장 띄었다.

스쿠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에서 내려 봐서인지 삼촌은 세발자전거를 타는 작은 아이처럼 보였다. 스쿠터는 자동차들이 빼곡히 서 있는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와 놀이터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는 곧바로 지하 주차장 쪽으로 향했다.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있는 지하 주차장 속으로 삼촌은 서서히 사라졌다.

지하 주차장엔 왜 가는 것일까? 삼촌도 스쿠터를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되는 것일까? 그래서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아파트 정문 쪽에 택시가 한 대 멈춰 섰다. 누군가가 택시에서 내렸다. 민국은 몸을 살짝 낮추었다. 아버지였다. 옆구리에 서류봉투를 낀 아버지는 몹시 피곤해 보였다. 굳세 보이던 어깨가 오늘은 웬일인지 축 처져 보였다.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문을 열고 “아버지!” 하고 불렀을 텐데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몰래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니 웬지 가슴이 슬퍼지려는 것 같았다. 매일 꼭두새벽에 출근해서 이렇게 깊은 밤에 돌아오다니.

아버지는 삼촌이 방금 지나간 놀이터를 돌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전거보관소를 지나칠 때였다. 아버지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미끄럼틀 안으로 뛰어 들어가 몸을 낮추었다. 조금 전 힘없어 보이던 모습과는 영 판판이었다.

뭘 일이지? 민국은 호기심이 불쑥 치밀었다.

지하 주차장 쪽에서 누군가가 긴 그림자를 앞세우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삼촌이었다. 그림자가 아주 살짝 절뚝거렸다. 걸어서 나오는 걸 보니 스쿠터는 안전한 곳에 세워둔 모양이었다.

삼촌을 발견한 아버지가 왜 갑자기 몸을 숨겼는지, 민국은 알 것 같았다. 첫째는 삼촌이 목발 없이 걷고 있는 것이 놀라웠을 것이고, 둘째는 이 밤중에 뭘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형사다운 행동이었다.

민국 역시 노련한 탐정처럼 아버지와 삼촌을 지켜보았다.

삼촌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자전거보관소 쪽으로 다가갔다.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자전거를 세고 있는 듯 보였다. 그 순간 민국은 뭔가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범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다가왔을 것이다. 안장을 쓰다듬으며 흐흐, 만족스러운 웃음도 지었을 것이다. 범인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낸다.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만능열쇠일 것이다. 범인은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팔딱팔딱 돌려댄다. 그러기를 몇 차례. 짹,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린다. 범인의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민국은 그렇게 상상했던 적이 있었다. 그 상상이 눈앞에서 그대로 재연되고 있었다.

민국은 그렇게 상상했던 적이 있었다. 그 상상이 눈앞에서 그대로 재연되고 있었다.

삼촌은 민국의 자전거로 다가가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바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자물쇠를 열었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끌어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미끄럼틀 뒤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지켜보고 있었다. 민국 역시 아버지와 똑같이 웅크리고 앉아 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삼촌은 절뚝절뚝 다리를 절면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 폴짝 올라탔다. 자전거는 아버지가 숨어 있는 놀이터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가로등에 비친 삼촌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민국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뜨거운 무엇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삼촌이 범인이라서가 아니었다.

그 옛날 자기 몸보다 더 큰 짐바리 자전거를 끌고 나가기 좋아했다는 삼촌. 그 자전거에 다리를 다치고 긴긴 시간 동안 마음을 담아왔던 삼촌. 그 삼촌이 다시 자전거에 오르다니. 이걸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게다가 머리를 써서 스쿠터까지 숨기다니. 삼촌은 어쩌면 12살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촌의 속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회복되었는지 몰랐다. 아니면 옛날부터 정상이었는지도.

놀이터를 빙빙 돌던 자전거가 단지 밖으로 나가도록 민국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꼼짝할 수 없었다.

삼촌은 초록 이파리들이 줄지어 서 있는 길을 따라 달릴 것이다. 민국이 그랬듯이 핸들을 놓고 두 팔을 새처럼 벌릴 것이 분명했다. “이야호!” 소리도 지를 것이다. 손가락으로 바람을 만져볼 것이다. 자전거는 날개가 되어 삼촌을 멀리 구름 위로 띄워줄 것이다.

놀이터에 숨어 있던 아버지는 어느 사이에 가로등 아래로 나와 서 있었다. 옆구리에 서류봉투를 낀 채, 몇 십 년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삼촌이 사라진 곳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민국은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많은 생각들이 밀려들었다. 왜 여태 삼촌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 동안의 행동을 보면 삼촌이 뻔했는데, 왜 용의선상에서 제외를 시킨 것일까?

머리는 금방 정리 되었다. 민국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삼촌은 자전거 도둑이 아니다. 옛날에 잃어버렸던 자전거를 찾았을 뿐이다.>

그런데 삼촌은 왜 민국의 자전거를 몰래 타는 것일까? 민국에게 말하면 얼마든지 타게 해 줄 텐데. 아니 용돈을 털어서 자전거를 사 줄 의향도 있었다. 열쇠는 어디서 난 것일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밀려들었지만, 민국은 모든 것을 접기로 했다.

민국은 <자전거 도난사건> 맨 밑에 이렇게 썼다.

<사건 종료>

그 글귀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노트를 덮었다.

아버지가 들어오면 인사를 할까 하다가, 웬지 새삼스러운 것 같아서 침대에 누웠다.

팔을 뻗어 스탠드의 불을 켰다.

툭.

어둠이 내렸지만 민국의 가슴은 환하게 불이 켜진 것 같았다.

